

2020

KRC 사회적

ANNUAL REPORT

2020 KRC 사회적 가치창출 ANNUAL REPORT

농어촌 그린가치

Green Value of the Rural Community

농어촌

공사의 사업영역이자, 젊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생기가 넘치며 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성원 모두가 상생하는 공간

愛

농어촌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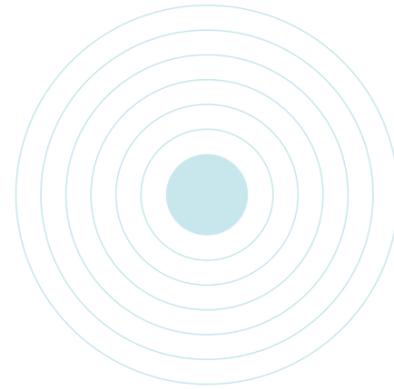
그린

농어촌 지역에 공사만의 사회적 가치를 가꾸어 나가자는 '그리다'라는 의미와 녹색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겠다는 의미

가치

"가치"는 "같이"의 중의적 표현으로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를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함께 가꾸어 나가자는 의미

C O N T E N S



01

KRC
소개

주요임무	06
기업연혁	07
조직	08
인력	
관리면적 및 시설물	09

02

KRC
주요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10
농어촌용수관리사업	11
농지은행사업	12
지역개발사업	
첨단·해외사업	13
경영전략	14
KRC의 사회적 가치	15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	16
사회적 가치 운영체계	17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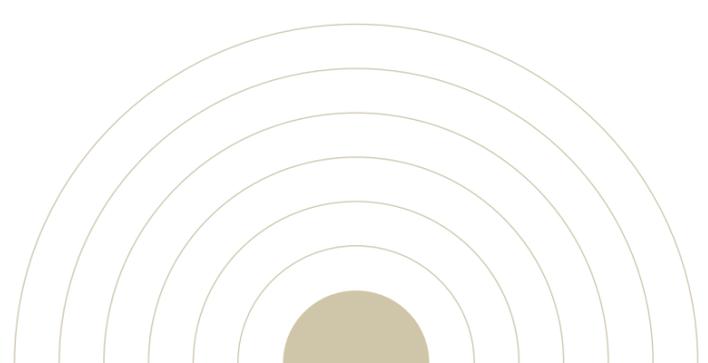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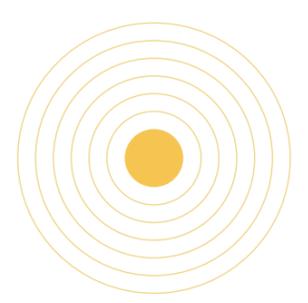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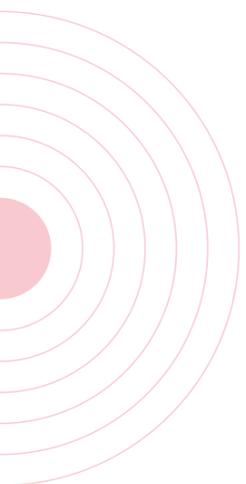
2020년
주요성과

안전과 환경	18
농어촌 경쟁력 강화	23
일자리 창출	28
상생·공정경제 실현	34
소통 및 책임경영	40

04

2020년
추진성과 우수사례

체험도 배달되나요? 농촌체험키트로 코로나 19 극복!	46
농촌의 내일을 청년농에게 심다, 청년농 맞춤 농지 지원	50
취약계층에게 더 큰 가능성을! 협동조합설립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54
해외 기술용역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58
풍요로운 미래를 나누는 공익형 태양광발전	62
농어가 부담은 줄이고, 소득은 올리고! 농어촌사랑그린뉴딜	66
산불진화 골든타임 확보,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원합니다!	70
신기술 개발부터 보호까지, KRC 중소기업 동반성장 A to Z	74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회적 농장」	78
도시 아이들, 농촌으로 유학가다!	82
농업용 저수지,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86



KRC 소개



한국농어촌공사는 1908년 설립 이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땅'과 '물'을 종합 관리하는 농어업·농어촌 전문기관으로서 농어업인과 함께 해왔습니다. 농어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농어촌의 사회, 경제, 환경,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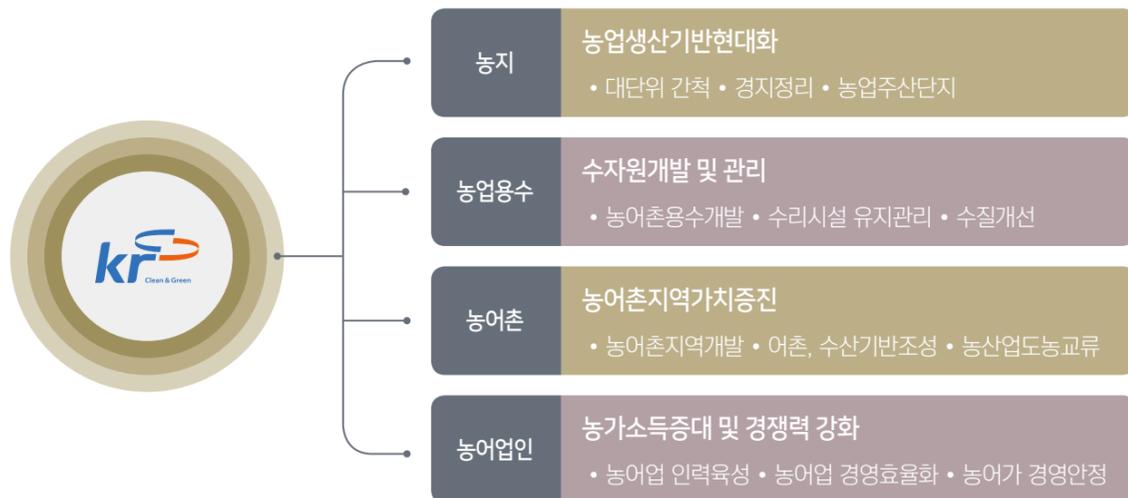
주요임무

한국농어촌공사는 환경친화적 농어촌정비 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 기반 시설을 종합 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 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RC Pro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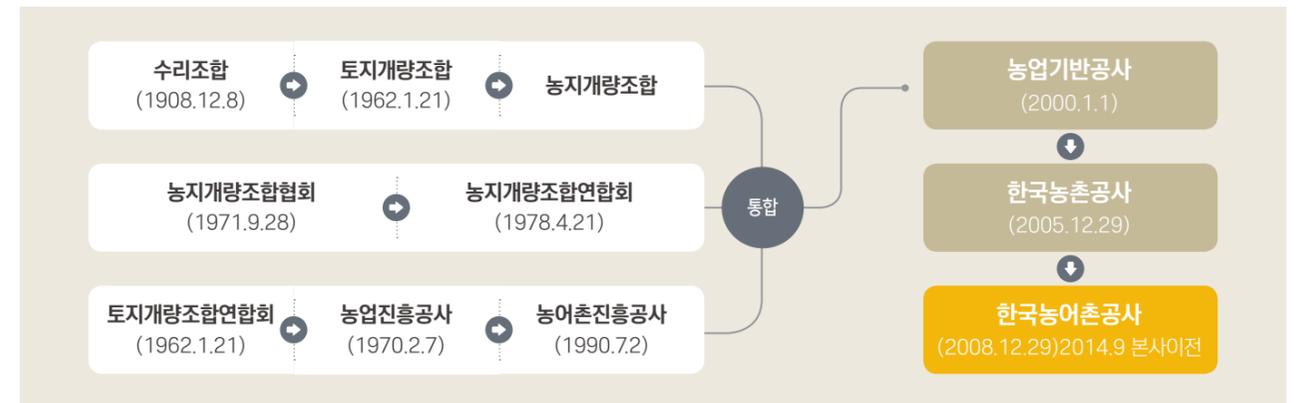
회사명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일자	1908년 12월 8일	자본	2조 1,200억 원
대표자	김인식	매출액	4조 1,141억원
법적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임직원수	6,311명 (2020년 정원)

주요임무



기업연혁

1908년 전북 옥구 서부수리조합을 시작으로 2000년 3개 기관이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한 이후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리와 농어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로 농어민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활기찬 농어촌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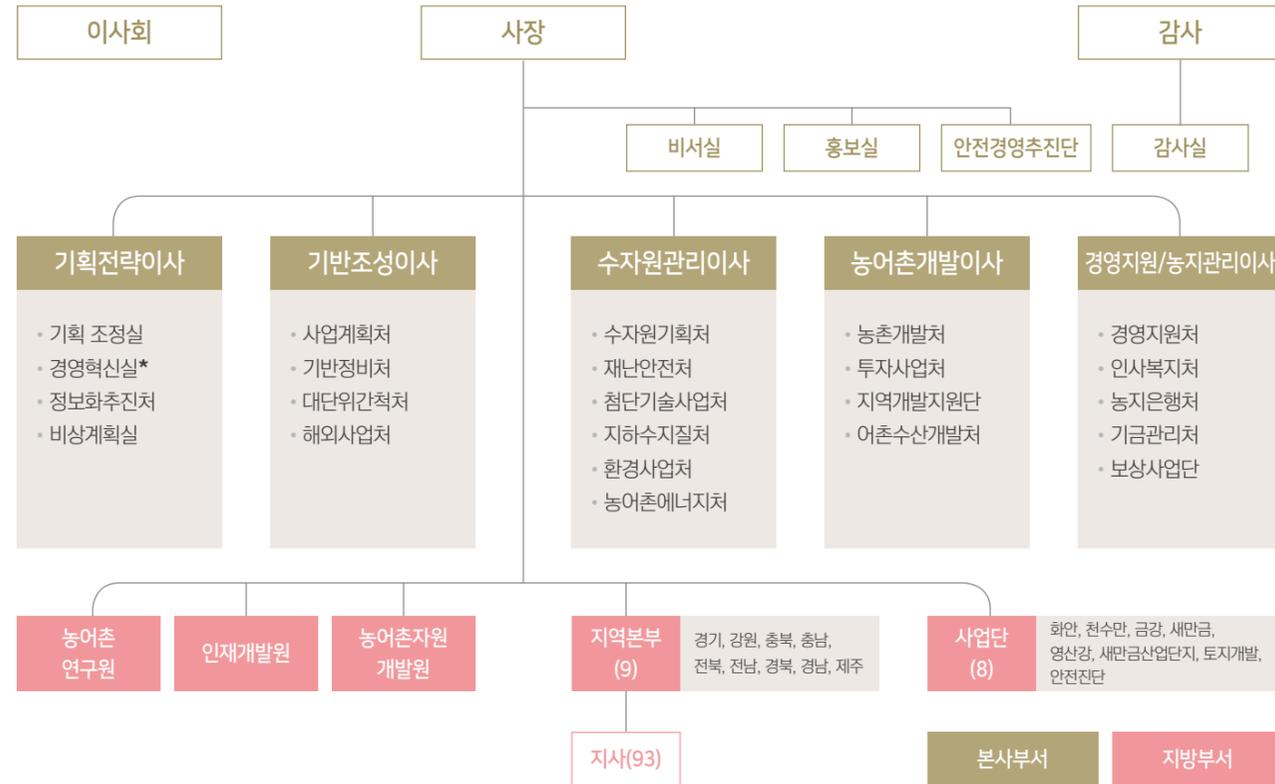


1908 - 1945	1946 - 1969	1970 - 1989
<p>1908 _ 한국농어촌공사의 첫 출발</p>	<p>1955 _ 식량 자급을 위한 국토확장 첫 출발</p>	<p>1970 _ 농촌 근대화의 선봉으로</p>
<p>1923 _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p>	<p>1968 _ 경지정리로 농업 생산 증대</p>	<p>1979 _ 하나씩 이뤄가는 식량자급의 꿈</p>

1990 - 1999	2000 - 2009	2010 - 2020
<p>1990 _ 농어업 구조개선의 중추로</p>	<p>2000 _ 3개기관 통합</p>	<p>2010 _ 33.9km의 기적</p>
<p>1990 _ 농업경쟁력과 소득확대 추진</p>	<p>2008 _ 농어촌 균형발전의 핵심으로</p>	<p>2014 _ 새로운 100년의 시작</p>

조직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기준, 본사(50이사, 27처실), 3원, 9지역본부(93지사), 8사업단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전담조직 「사회적가치추진단」의 2개 부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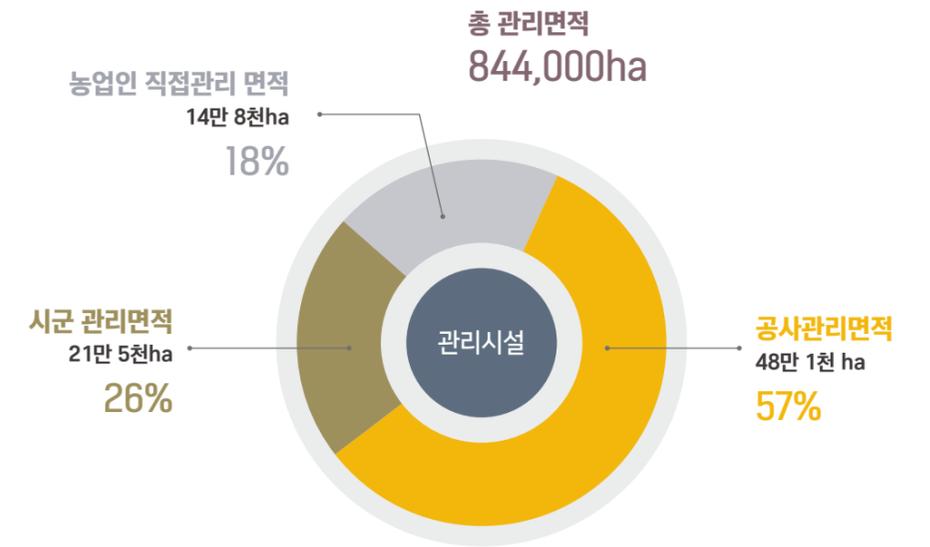
인력

한국농어촌공사에는 2020년 연말 기준 총 6,038명(현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정현원차 ZERO를 목표로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을 정규직으로 조기 전환 완료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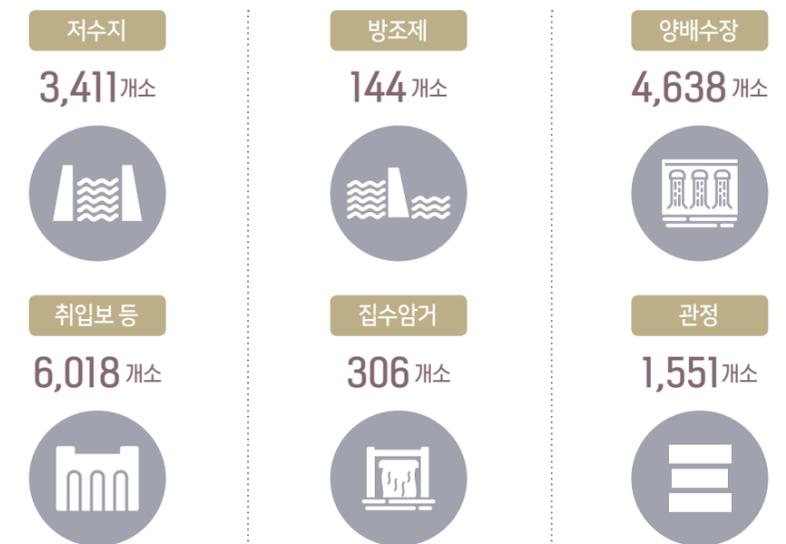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구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정현원 비율	90%	93%	95%	97%	100%	연도별 전환실적	909	319	177	167	55	95	96

관리면적 및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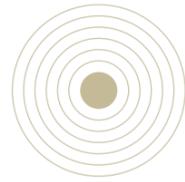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전문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논 면적 84만 4천 ha 중 57%인 48만 1천 ha를 관리하고 있으며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취입보 등 농업생산 기반 시설 총 14,2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



KRC 주요사업



농업생산 기반사업

국민 먹거리 생산 기반 조성 및 관리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대단위 농업개발

여의도 면적의 330배에 해당하는 95천 ha의 대규모 간척지를 조성하여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업생산능력을 증대했습니다. 또한 간척지를 논 위주에서 시설원예, 밭작물 등으로 범용화하여 대규모 복합영농 단지를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농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수자원 확보와 재해방지

상습 가뭄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합니다. 또한 상습적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합니다.



편리한 영농기반 조성

구획이 작거나 용수로, 배수로 등의 기반 시설이 취약한 농지를 재정비하여 영농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지 정리된 농경지 내의 주요 경작로, 농산물 생산지, 가공·유통시설 간 농로를 확대·포장하여 영농기반의 편리성을 높여줍니다.

농어촌용수관리사업

112년의 물관리 역사와 과학적이고 깨끗한 농업용수 관리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용수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농업용수 공급

1908년 옥구 서부수리조합(現 전북 군산시 소재)을 시초로 체계적 용수관리 서비스를 시작하여 안전영농 실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논면적 84만 4천 ha 중, 57%에 달하는 48만 1천 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관리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수질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수질 개선 ▶ 보전·개선)으로 청정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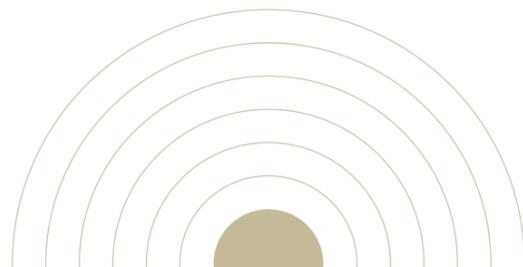
농업용수관리 디지털화

농업용수를 적재적소에 공급하기 위해 최신 IoT 기술을 접목시켜 수리시설물을 원격으로 관리·제어(TM/TC) 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저수지 등 노후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집중호우 등의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사업

생애 주기별 농지은행사업으로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고 경영위기 농가 및 고령농가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 귀농인, 전업농업인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위탁하여 임대하고 관리합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합니다.



농지연금사업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여 농촌 사회의 복지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역 균형 발전과 소득증대로 사람이 돌아오는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 갑니다.



농어촌개발

농어촌마을 개발,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6차산업화를 통한 소득원·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갑니다.



농산업·도농교류

농촌관광 방문객 유치 확대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지원으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재능나눔, 사회적 농장 등 공동체 활성화 노력으로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첨단·해외사업

첨단농업과 친환경 에너지 개발로 농업·농촌의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첨단농업 단지 조성 및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채소·화훼류 재배 농가 등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첨단 스마트팜 온실 등을 구축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가에 지열, 지중열 등 에너지 절감 냉난방 시스템을 보급하여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개발

유휴부지, 저수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보유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 수익은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 국민의 안전과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술용역

한국농어촌공사의 축적된 농업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개발도상국의 관계 배수, 지하수 개발, 농촌용수 개발, 농촌 개발 등 다양한 기술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사업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적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농업개발 지원

곡물 자급 및 식량 안보,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지로 진출하는 민간기업의 자금,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7대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전략과제



KRC의 사회적 가치

KRC의 사회적 가치란?

농어촌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참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또한 농어촌 일자리 창출, 상생 협력을 통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4대 핵심가치

한국농어촌공사만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4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농어촌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가치 창출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발전	경제적 발전	환경적 발전	문화적 발전
고유 목적사업을 통한 공공성 제고 및 안전 강화	농어촌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다움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농어촌 공동체 복원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농어촌의 사회·경제·환경·문화적 발전

KRC 4대 핵심가치

한국농어촌공사만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4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농어촌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가치 창출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 농어촌 사랑 안심 사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과 보호,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 농어촌 사랑 상생 경제**

농어업의 소득 증대와 소득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 소득 창출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보유기술의 민간 이전, 실험시설 공유 등을 통해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경영의 토대를 만들어 갑니다.
- 농어촌 사랑 쾌적 환경**

개발사업 및 도시화로 인해 오염된 물과 흙을 정화하여 깨끗한 생태계 회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농어촌을 만들어 나갑니다.
- 농어촌 사랑 행복 문화**

고령화와 복지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에 다양한 봉사활동과 재능기부,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농어민이 더욱 행복하고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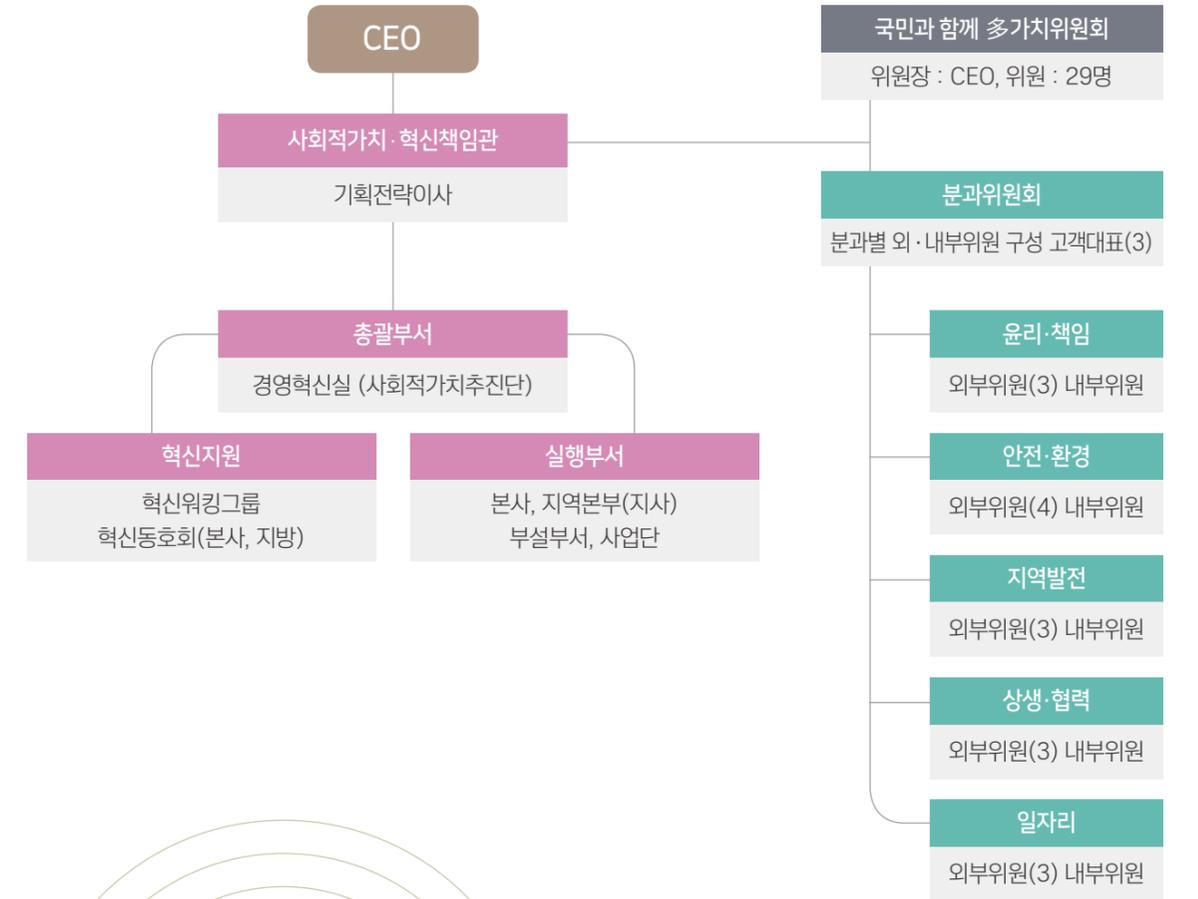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5대 전략 ① 안전과 환경, ② 농어촌 경쟁력 강화, ③ 일자리 창출, ④ 상생·공정경제 실현, ⑤ 소통 및 책임경영에 따른 13개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농업·농어촌 전 분야에 걸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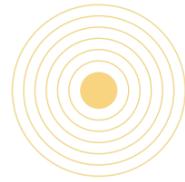


사회적 가치 운영 체계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로 '국민과 함께 다가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성과



안전과 환경

농업 기반시설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수지, 배수장 등 안전한 영농환경을 구축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활용으로 환경오염 없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안심사회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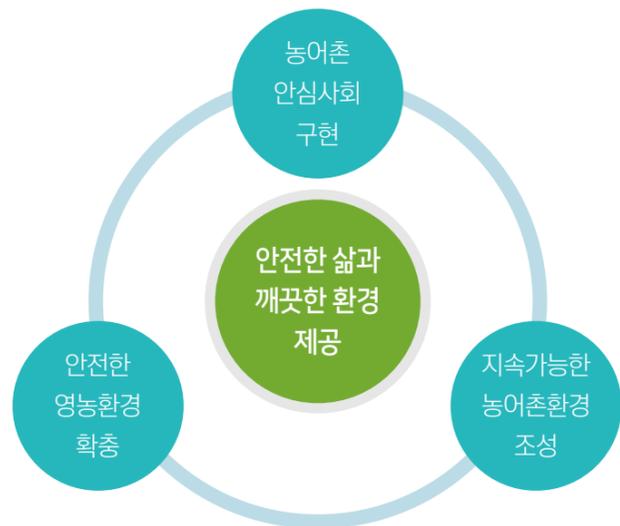
안전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확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안전 영농환경 확충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물관리로 재난·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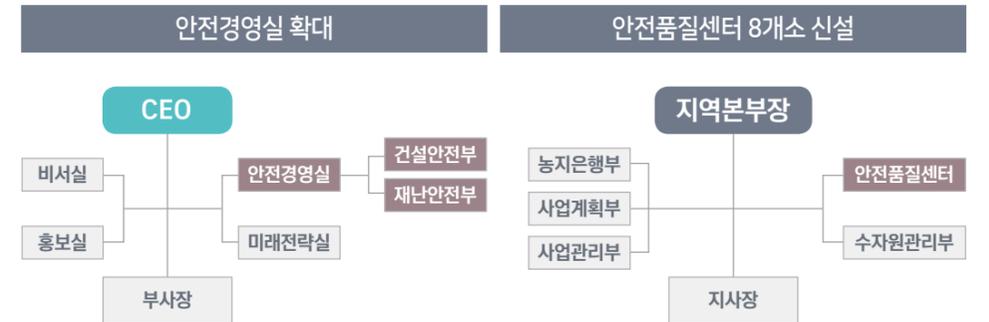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농업 기반시설 안전 관리 자원 확보와 함께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합니다.



안전 중심 경영체계 확충 및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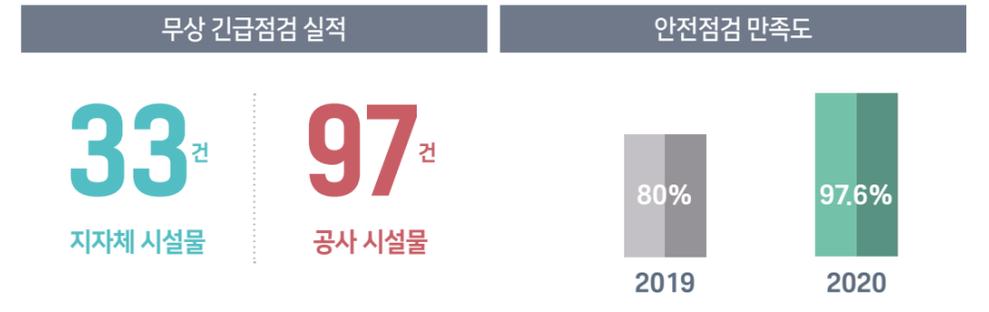
CEO의 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 안전관리 전담조직 확대

1908년 전북 옥구 서부수리조합을 시작으로 2000년 3개 기관이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한 이후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리와 농어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로 농어민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활기찬 농어촌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우리 손에, 「시설물점검119센터」 조직 확대로 안전진단 강화

시설물 점검 119센터를 정규조직(부단위)으로 개편하고, 공사 시설물 외 지자체 관리 시설물까지 무상 긴급 점검을 확대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

안전사고에 대한 임원 문책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사고와 관련한 상임이사 문책 사유,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문책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 관리 강화

CS-HACCP 도입으로 위험요소 사전 차단, 중대재해 ZERO!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CS-HACCP'을 도입했습니다. 산업재해가 전년 대비 47% 감소(151▶80건)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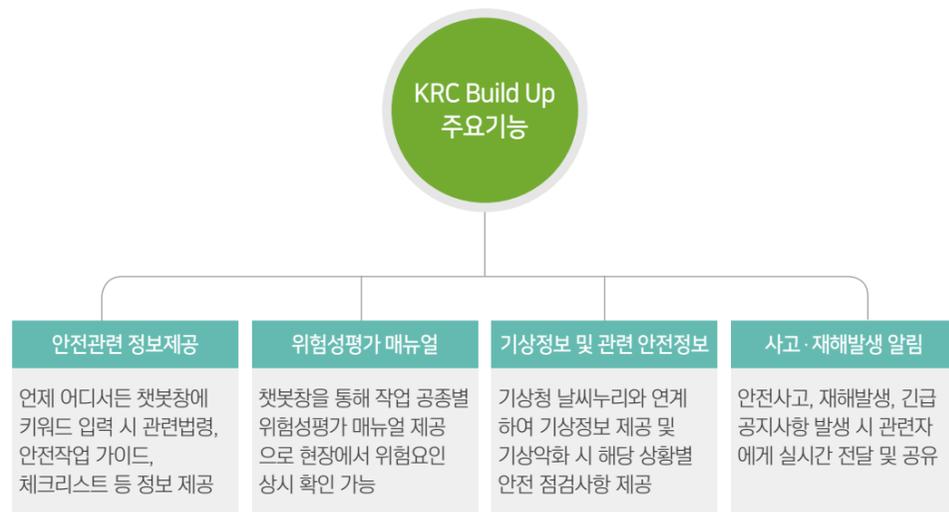
CS-HACCP(Construction Safety-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시스템

Data			Network	Achievement
제도정비	안전교육	현장점검	체계적 재해관리	재해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신고 콜센터 운영 휴일작업 등록제 시행 건설공사 안전 관리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인 대상 순회 교육 신입직원 안전 역량강화 교육 안전관리 취약 지역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진의 전사적 안전점검 외부기관 합동 위험성평가 실태 점검 중대재해 발생 현장 특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운영 (KOSHA18001) 건설재해 발생 현황 모니터링 누구나시스템* 으로 재해요소 사전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CS-HACCP 으로 중대재해 예방 재해율 감소 및 중대재해 ZERO화

* 누구나시스템 : 안전 관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 설계부터 준공까지 관리 가능한 사업관리시스템

SMART한 안전관리, 공공기관 최초 건설현장 안전관리 챗봇시스템 도입

근로자들이 안전규정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랫폼 '챗봇'을 개설했습니다. 또한 취약 시기별 맞춤형 체크리스트, 이슈 및 감사 지적 사례 등을 데이터로 구축하여 챗봇을 통해 공유하는 등 안전관리와 효율성을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적극행정과 디지털기술로 재난 대응능력 강화

제도의 빈틈을 메꾸다! 산림청과 적극행정으로 산불방재 공동 대응 우수사례

산림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저수지를 소방용수 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불진화를 위해 화재지점과 가장 가까운 수원을 찾아야 하지만 저수지 3,41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MOU를 체결하고 산불상황관제 시스템에 저수지 위치와 저수율을 공유하는 등 공조체계를 구축해 산불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했습니다.

긴급재난문자와 연계해 시설물 담당자 안내서비스 제공 ▶ 행안부 협업이음터 1호 과제

지역주민 누구나 신속하게 농경지 피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긴급재난문자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역 농업인 대상 '담당구역 안내 문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SMART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 확산

IoT, 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재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스템 도입으로 이상 징후 발생 시 시설물 관리자에게 경보 문자가 발송되어 즉각 대응이 가능해졌고, 시설물 관리자 없이도 배수장의 자동 운전이 가능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 풍수해 무인자동제어 배수장**
 - 배수장 669개소 무인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 2020년 농식품부 혁신과제
 - 시설관리자에게 재해 위기별 경보(SMS) 발송 ▶ 자동 운전 가동
- 지진 재해예방 계측기**
 - 저수지 460개소 재해예방 계측기(지진/누수/제방 변위) 설치
 - 상시 계측으로 이상 징후 시설관리자 알림 SMS 발송 ▶ 시설물 점검
- 수질 수질자동 측정망**
 - 저수지 39개소 대상 수질 자동측정 장치 설치
 - 실시간 저수지별 수질 경향 파악 및 상시 모니터링

지역주민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개발로 그린 뉴딜 선도

공사 최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모사업 '햇빛나눔사업' 추진! 우수사례

한국농어촌공사 최초로 공모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민간 직접 건설 분양 + 주민채권 투자참여'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지역상생' 지표를 신설하여 업체 선정 시, 지역 기업 시공 참여율 등을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채권참여(7%)로 연간 11억 원의 소득창출과 함께 건설·운영 분야에서 22백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공사는 새만금 방수제, 저류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수익을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

'마을발전소' 건설로 농어촌 지역주민복지 향상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재생에너지 규모의 5%를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자금으로 마을발전소를 무상 건립하고 발전 수익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8개 마을발전소를 준공해 20년간 총 23억의 소득창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발전수익을 유지관리 재원과 농가 소득으로 환원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사업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과 주민 소득으로 활용됩니다.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의 경우 매년 9억 원의 임대수익 발생으로 20년간 총 180억 원의 새만금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취약한 주거환경과 생활·복지 인프라를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경영회생 지원, 농지연금, 경영비용 절감 지원 등으로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함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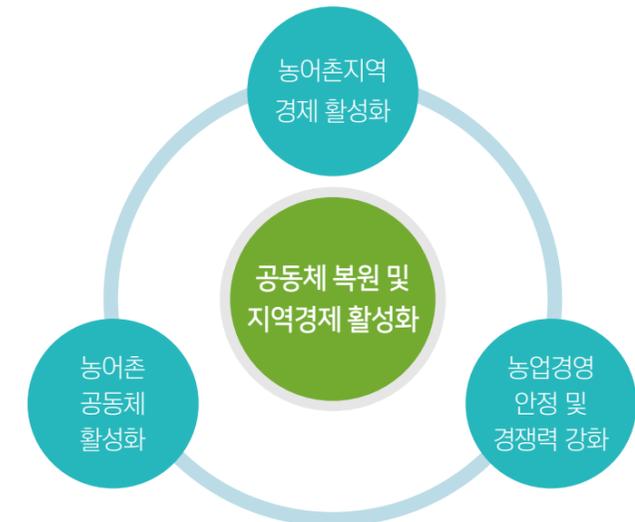
다양한 도농교류 활동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촉진하고 농어촌관광과 융복합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 주거환경과 복지,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재능기부 등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무너져가는 농어촌 공동체를 복원해 나갑니다.

농업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

농지은행을 통해 경영회생, 농지연금 등 농업경영 안정 지원과 함께 고령농가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을 통한 농어업 생산 비용 절감으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농촌관광사업 전면 개편

위기를 기회로, 농촌관광 S.O.S 프로젝트 추진!

코로나19로 농촌체험마을 매출액이 전년 상반기 대비 48%로 급감한 상황에서 농촌체험마을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맞춰 방역·안전점검,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비대면 상품과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트렌드 변화	농촌관광 S.O.S(Safety, Overcome, Smart Service)	실적/성과
안전에 대한 요구인식 UP!	안전점검 방역강화 • 전국 350개소 체험마을 위생점검, 방역물품 지원 • 안전·화재보험 가입 지원(80%)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사고 대응 강화	체험마을 코로나 발생 ZERO!
개별·소규모 관광 선호도 UP!	홍보·마케팅 강화 • 신용카드 3사와 협약 체결로 농촌관광 이용액 30% 청구할인 • 농촌관광체험단, 인플루언서 팸투어, 버스·기차여행 상품 152종 운영	34억 체험마을 소득창출!
비대면· 레저·캠핑 수요 UP!	비대면 서비스 전환 • 농촌체험키트 상품 개발 ▶기재부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 확산 포럼 우수사례 선정 •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는 차박, 캠핑 등 여행 콘텐츠 개발	14억 소득창출!

비대면 상품 개발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 평균 매출액 1.5배 이상 상승

농촌마을을 방문하지 않고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비대면 '농촌체험키트' 상품을 개발하고 사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초·중교, 어린이집 등 483개소에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차박, 캠핑 등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 8개 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다른 마을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액이 164%(21▶34백만 원) 상승하고 전년 대비 매출액 하락률은 상반기 48%에서 하반기 34%로 감소했습니다.

신용카드사 청구할인

농촌체험키트상품 개발

신규 여행상품 개발

➔

추진성과

- '20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액 **164%**▲
- 전년도 대비 매출액 감소율 **48%**▶**34%**로 하락

농어촌 주거·복지· 교육 인프라 강화

주거·생활환경 개선으로 농어촌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농어촌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선정 대상을 노후·슬레이드 비율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차 가구까지 확대, 지원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생활시설 구축과 생활 안전망 강화 등으로 취약계층 총 2,049명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농촌의 취약한 생활·복지·교육 인프라 서비스망 Upg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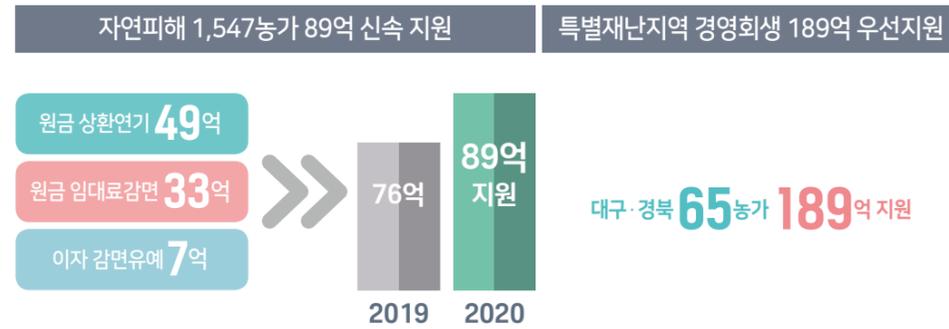
농촌의 생활 편의, 공교육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 버스 노선을 증설하고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재능나눔을 통해 수해 복구와 농한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농촌유학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우수성과를 확산하였습니다.

교통편의 서비스	생활·복지 서비스	농촌 공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노선 322개 신설 (총 458노선) • 비용정산 시스템 도입 • 이용객 '19년 290만 명 ▶ '20년 350만 명으로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피해마을 수해복구 (27개 마을) • 농한기 농촌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18개 마을) • '20년 수혜인원 46,870명 (누계 303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유학 평가제도 도입 • '19년 278명 ▶ '20년 295명 • 유학생 2,300명(누계) 유치 • 통폐합 방지 9개소(누계) • 복식학급 해소 9개소(누계)

농어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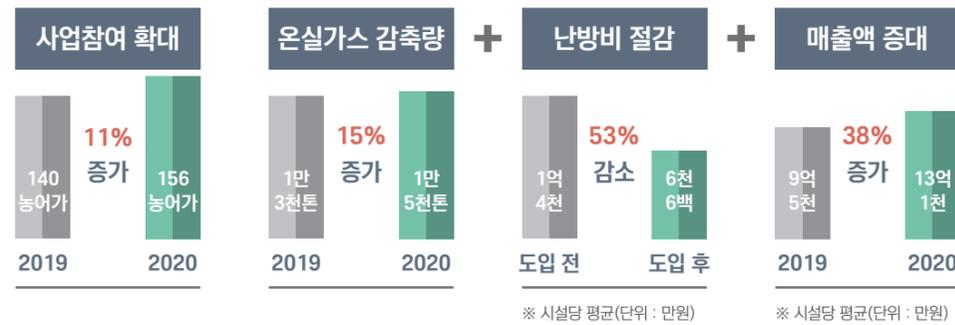
농지은행으로 자연재해 피해 농가 및 특별재난지역 278억 우선 지원

농지매매, 임대 지원을 받은 농가 중 자연재해 피해율이 30% 이상인 1,547농가에 임대료·이자 감면(45~100%)과 원금 상환기간 연기(1년)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올해는 지원방식을 납부 후 환불방식에서 납부 전 감면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원시기도 2개월 앞당겨 농가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지역 65농가에 경영회생비용 189억 원을 우선 지원하여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확대로 농어가 경영비용 53%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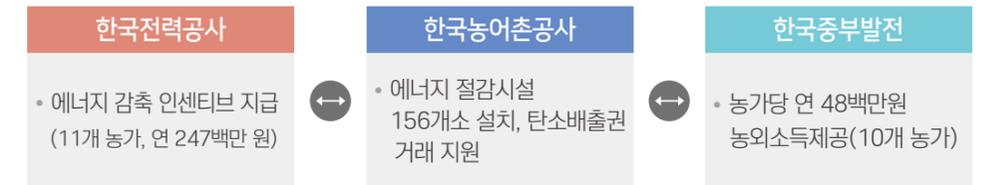
공사는 농어가에 지열, 해수열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을 위해 설계부터 컨설팅,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가 자부담*을 줄이고 수산 가공 분야까지 확대하여 총 156 농어가에 시설을 보급했습니다.



* 자부담율 : (지열) 30% ▶ 20%, (공기열) 50% ▶ 30%

한국전력공사 & 한국중부발전 협업으로 농외소득 창출까지 우수사례

한전 고효율 에너지기 공동 보급사업,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 제도)와 연계해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한 11개 농어가에 절감액에 따라 연 247백만 원의 부가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부발전과의 MOU('19년)체결을 통한 탄소배출권 판매로 10개 농가가 연 48백만 원의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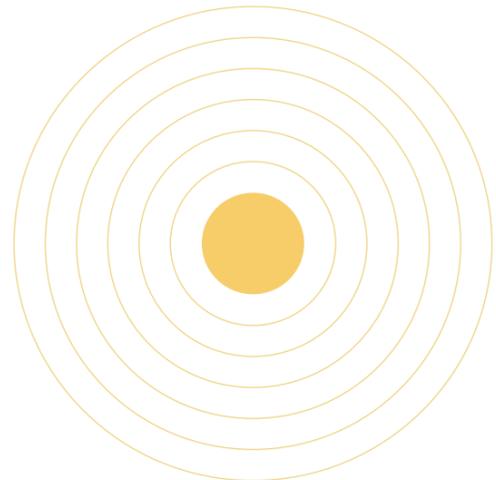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고용 기회 확대로 양질의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어촌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농업 혁신으로 농어촌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나갑니다. 또한 민간과 협력하여 농업 SOC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바람직한 일터 조성

고용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으로 공공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또한 처우개선과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으로 근로자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변화된 농촌의 눈높이에 맞는 농지 정책 마련으로 영농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취약계층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합니다. 4차 산업과 연계한 농업 혁신 성장으로 농촌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갑니다. 또한 민간 협력을 통한 농업 SOC 사업 추진, 협력사 기술공유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갑니다.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맞춤형 채용 전략으로 일자리 취약계층 209명 채용

맞춤형 채용 전략으로 209명을 일자리 취약계층으로 채용했습니다. 특히 고졸자 채용에 적합한 직무를 별도로 발굴해 전문 물 관리직 59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응시 자격을 완화해 채용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일자리 취약계층	2019년	2020년	채용성과
고졸자	별도 채용	물 관리 전문 인력 신규채용	6명 ▶ 59명
장애인, 보훈자	별도전형, 가점제도 운영	여학생적 면제 추가혜택 제공	6명 ▶ 8명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서류전형 1점 가점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지역사회 인재	별도전형 운영 35%	별도전형 운영 40%	실제 채용비율 63.7 ▶ 64.3%

「장애인 인턴」 신설 등 취약계층 구직자 고용기회 확대

지역 대학, 장학재단 등과 연계해 다양한 인턴제를 운영하고 작년 보다 86% 증가한 총 158명에게 근로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장애인 인턴제를 신설하여 우수 수료자에게는 채용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했습니다.

프로그램	세부내용	운영실적
현장실습	현장실습 후 학점 부여	광주 전남 4개 대학생 30명
광주 청년드림	광주시 미취업 청년들에게 직무경험 제공	광주시 구직자 53명
오픈캠퍼스	농업분야 취업희망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실무교육 및 진로탐색 기회제공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44명 총 64명
국가근로장학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생 현장실습 추진	근로실습 및 기본소양 교육, 총 18명
장애인인턴	장애인고용공단 추천자 면접 후 인턴 채용	지역본부별로 실시하여 27명 인턴 채용
본부별 자체운영	지역본부-지방대학 연계 인턴십 운영	4개 지역본부 총 30명

채용 공정성 강화

채용전형 제도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로 채용비리 사전차단

공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채용에 대해 단계별 체크리스트 점검을 의무화하여 잠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또한 채용위원 선정 기준을 강화해 응시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 블라인드 채용 위반자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비정규직 채용절차 전면 개편으로 채용 공정성 확보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과정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채용 프로세스의 전 과정을 개선했습니다. 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채용 목적, 규모, 방법 등 전 단계에 대해 적정성과 공정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채용공고문 표준안을 배포했습니다. 또한 전형별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규정에 명문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계약직 채용 사전심의회 운영 절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으로 채용분쟁 사전방지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채용계획 수립 시 불합격자의 이의 제기 절차, 추가 합격, 차기 채용 시험에서 해당 전형 면제 등 전형 단계별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 채용비리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청년농이 만족할 때까지, 적극행정으로 청년농 맞춤형 농지 제공 확대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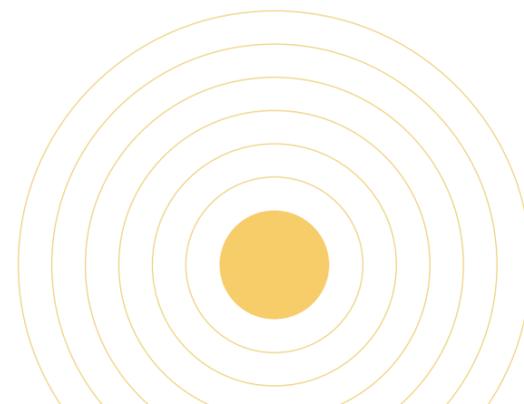
청년농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을 통해 작년 보다 111%로 증가한 4,536명에게 농지 3594ha를 임대했습니다. 올해는 청년농들이 원하는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여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매입 면적과 단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자 개정사항을 우선 시행하는 적극행정으로 차질 없이 농지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사항	기존	개선
매입면적 기준 완화	1,983m ² 이상	1,000m ² 이상
광주 청년드림	(논·밭) 2.8~5만원/m ²	(논) 2.8~9.2만원/m ² / (밭) 2.8~10.5만원/m ²
본부별 자체운영	농업인 소유 농지	상속·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 소유농지 추가

협동조합 설립 지원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농어촌 취약계층에게 한국농어촌공사의 시설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19년부터 지사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전환 신청하고 '고령농▶청년농'까지 협동조합 설립 지원 대상을 확대해 총 48백만 원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구분	조합명	주요내용	추진성과
고령농	대가실업협동조합	• 협동조합 설립('19년) •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신청('20.9월)	'20년 48백만 원 소득창출
청년농	의성푸른협동조합	• 협동조합 설립('20.10월)	



SOC 사업과 기술 해외 수출로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

공사 기술 해외 수출로 민간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세계 유일의 대규모 방조제 축조 경험과 기술력,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총 21개 1,075억 원의 해외용역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에만 민간기업 54.5억 원의 수익과 54.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나아가 기본설계가 완료된 자카르타 방조제의 경우 향후 세부설계 진행과 방조제 건설 참여로 50년 동안 연간 5천명 이상의 민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카르타 방조제 일자리 창출 효과



농업 분야 SOC 사업으로 민간 일자리 28,927명 창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토목 전문기관으로서 2020년 한 해 동안 총 1,219개 공사현장을 운영했습니다. 2019년부터 SOC 분야 민간 일자리 실적을 위해 일자리 현황판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 결과 올해에는 전년도 보다 9% 늘어난 28,927명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추진노력	성과			증감	비고
	2019	2020			
	성과	목표	성과		
[합계] 민관 협업 및 개방·공유를 통한 민간일자리 증대	26,630	27,844	28,927	2,297	
[직접창출] 공사 보유 시설 관리 지역주민 고용	10,087	11,766	10,986	899	
[간접기여] 청년농 농지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6,123	5,348	7,499	1,376	
[공사현장] 전국 공사현장 사무소 1,219개소 실측	10,420	10,420	10,442	22	

KRC 기술 공유 및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 지원

'KRC 닥터'로 중소기업 기술 비용 18억 절감!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전문 기술을 중소기업에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해 'KRC 닥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술 공유를 더욱 확대하여 작년 보다 약 115% 늘어난 420건의 기술 공유를 실시하고, 기업들이 공유한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의 2배 수준인 40개 업체에 교육을 실시해 기술 도입 비용 18억 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기술 비용 절감액 18억 = 기술도입 비용 4.4백만 원 × 기술 공유 420건

중소기업 신기술의 요람, 테스트 베드 제공으로 신기술 개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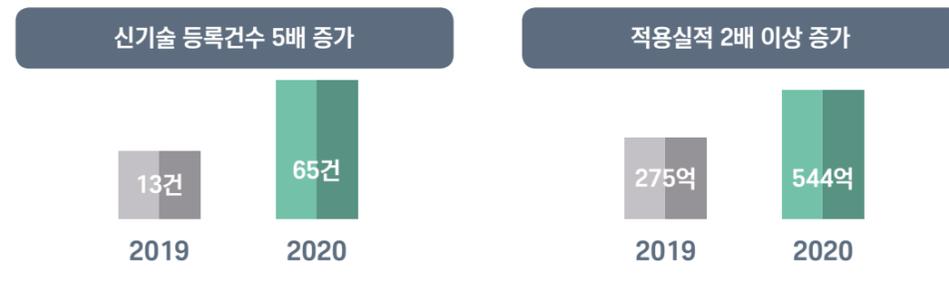
저수지, 수리모형시험시설 등 한국농어촌공사 만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테스트 베드로 제공하여 중소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해외에서 시범영농, 비료 개발 등 실증 실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자원	테스트 베드 제공 내용	2020년 실적
수리모형	• 대학교 현장실습 및 민간기업 실증실험 기회제공	대학실습프로그램 5건, 실증실험 2건
저수지	• 수질개선 실증시험 공고를 통해 실증실험 기회제공	실증시험 기회 10개 업체 제공
해외농업	• 해외 시범영농, 비료개발 등 실증시험에 필요한 비용지원	3개 기업 선정, 94백만 원 지원

'신기술 등록제도' 개선으로 신기술 도입 대상 확대!

우수사례

중소기업 신기술을 도입하여 신규 판로 확보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인증기술에 한정되어 있던 등록 범위를 성과공유제 개발 기술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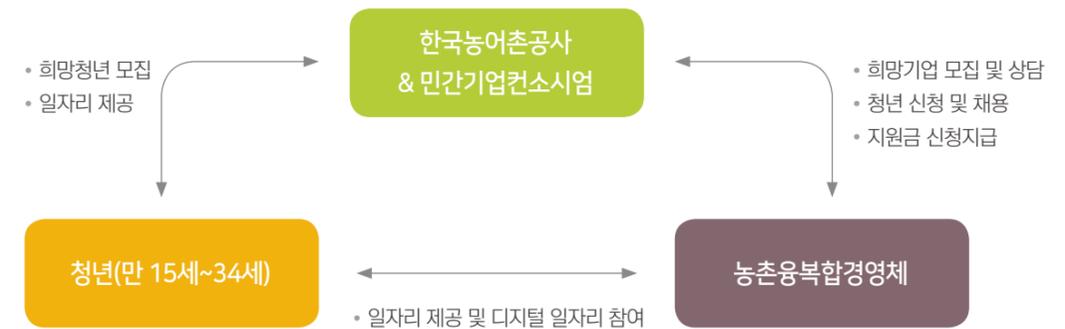
상생협력 기금으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임치비용까지 지원!

올해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1천만 원을 출연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중소기업이 공동 개발한 11개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임치 비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디지털 일자리 창출로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청년 디지털 일자리 제공으로 농촌 융복합산업 온택트 역량 동반 상승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융복합경영체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인지어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공모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위탁 기관으로서 IT 인력이 필요한 9개 농촌융복합경영체와 청년 구직자를 연결하여 IT 분야 청년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디지털 일자리 창출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제도의 시행에 따라 직불금 수급 기초자료인 '농지원부' 정비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식품부와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 채용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326명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배경	공익직불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농지원부 정비 필요성 ▲	추진성과 • 농지정보 현행화로 부정수급 원천 차단 • 공사-지자체 신규인력 326명 채용
문제점	농지원부 민원 및 코로나19 행정업무로 인력 부족	
해결방안	보조인력 채용·교육(33회) 및 농지행정 정보 현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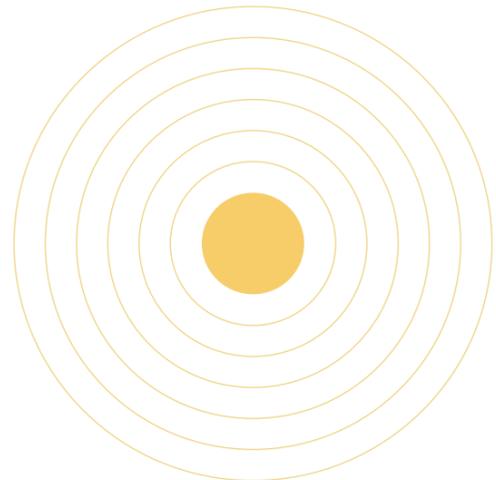
상생·공정경제 실현

상생·협력 및 혁신성장 지원

불공정한 관행 개선,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 및 혁신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또한 혁신도시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주도합니다.

사회적 경제 성장 지원

사회적 농장 등 농어촌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지원하고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 발전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을 실천해 나갑니다.



공정거래 모델 확산 및 협력사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갑질 조항 폐지 및 중소기업 진입장벽 완화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불합리한 계약조건의 폐지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입찰 평가 항목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개선사항		기존	개선
불합리한 계약조건	적격심사	• 적격심사 포기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포기자 제재 삭제로 과도한 제한 금지
	협상계약	• (제안설명회) 참가자만 계약 가능	• 설명회 참가의무 삭제로 입찰기회 확대
중소기업 입찰확대	납품실적	• (소기업) 5년 이내 납품 실적 인정	• (소기업) 7년 이내 실적 인정 확대
	경영상태	• (2억 미만) 창업기업만 만점 평가	• (2억 미만) 소기업 만점 평가 신설
협력업체 부담완화	선금청구	• 잔여기간)30일 초과 시 선금 지급	• 잔여기간 요건 삭제로 선금 청구 확대
	선금지급	• 선금 사용내역서 및 증빙 제출	• 사용내역서 제출 폐지로 부담 완화

공정거래 시스템 도입·의무화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

농협과 MOU를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대금 회수 및 유동성 향상을 위한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협력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행한 매출채권을 농협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 현금화하여 다른 협력기업의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 신용도가 더 높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용도로 어음 할인이 이뤄짐에 따라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금지급 전년 대비 1,658억 원 확대로 협력업체 자금 위기 지원

코로나19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협력사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선금 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선금 지급 요건과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년 대비 1,658억 원 늘어난 6,167억 원을 선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구분	선금지급 대상액		선금지급율	
	2019년	2020년	2019	2020
선금지급액(A, 억원)	4,509	6,167	22.5%	27.1%
선금지급대상(B, 억원)	20,066	22,729		
선금지급율(A/B)	22.5%	27.1%		

중소기업 자금 및 판로지원 확대

동반성장 상생펀드 100억 신규 조성, 중소기업 대출이자 1.4억 지원

공사 최초로 기업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동반성장 상생 펀드 10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시중 금리보다 1.4%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게 대출금을 제공하고 금리 차액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광주·전남 기업, 창업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57개 기업의 대출금 100억 원에 대한 연 이자 1.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해외 진출 자금 중소기업 우선 지원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들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용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용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대기업에 편중	(개선) 중소기업 우선지원
지원횟수	제한 無	• 중소·중견기업 제한 無, 대기업3회
자부담율	30%로 동일	• 중소·중견기업 30%이상, 대기업 50%이상

코로나19로 막혀버린 판로 개척의 기회, 비대면 수출상담회로 극복

우리나라 농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매년 KOTRA와 공동으로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해외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 진출로가 더욱 좁아진 기업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우크라이나'(7월), '한-러시아'(11월)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총 70개 기업이 참여하고 총 70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지구농 프로젝트'로 광주·전남 소규모 농부의 성장 지원

광주사회혁신 플랫폼과 함께 지역 소규모 농부들이 직거래망을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구농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온·오프라인 장터를 병행하여 5회에 걸쳐 추진해 총 48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지구농 장터에서 26백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등 소규모 농부의 성장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임직원과 함께 지역의 사회적 기업 판로 확대에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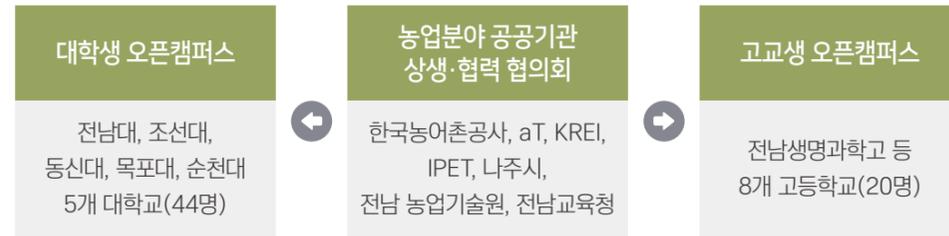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사회적 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금요장터'를 추진해 18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14개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등과 함께 '사회적 경제 물품 온라인 공공 구매 플랫폼'을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최초 오픈(5월)하여 총 12백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어촌 지역 미래 인재 양성

유관기관과 함께 농업 분야 지역 인재 양성 '20년 전남지역 롤모델 사업 선정'

‘대학생 빛가람 미래농업 인재 육성과정’이 ‘20년 전남지역 롤모델 사업’으로 선정되어 3개 대학에서 5개 대학으로 확대해 대학생 44명을 대상으로 제2기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전남 교육청과 함께 손잡고 8개 고등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고교생 오픈 캠퍼스’를 신규 운영하여 지역 인재 양성에 앞장섰습니다.



농촌유학으로 농촌 공교육 회복과 함께 도농상생 미래 인재 양성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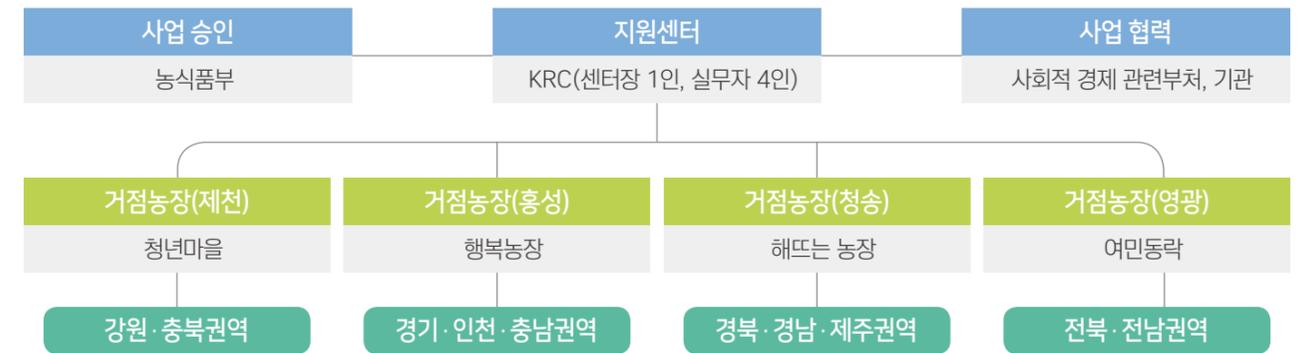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무너져가는 농촌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아이들에게 농촌의 생태 교육적 가치를 심어주고자 농촌유학센터, 학교, 농촌마을, 지자체와 함께 농촌유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취약점에 대한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 농촌유학센터 7개를 선정하여 전파하는 등 농촌유학이 새로운 도약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적 농장 육성·지원 강화

'농업·농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신규 설립으로 사회적 농장 본격 육성! 우수사례

한국농어촌공사는 2023년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교육, 고용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 100개소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농업·농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4개 거점 농장을 지정하고 농장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회적 농장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농업·농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경영과 제품 개발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로 확대, 홍보 마케팅 등 판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사회적 농장의 온라인 플랫폼(www.socialfarm.kr)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류	2020년 주요 실적
전문 서비스	전문상담 : 법률, 회계, 특허, 세무 등 컨설팅 지원(110개소) 제품개발 : 상표 및 특허출원 4건
판로 지원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6개소) 및 5억 원 매출 달성
홍보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사회적 농장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기타홍보 : 홍보책자, KTX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추진



소통 및 책임경영

부패 근절을 위한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하여 윤리경영의 실천과 함께 국민 편익을 높이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공헌 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합니다.

투명·윤리경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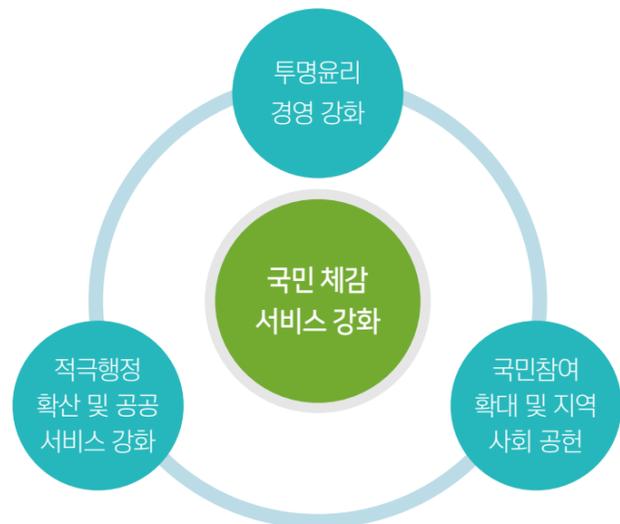
갑질 등 각종 부패 근절을 위한 내부 규정과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권경영 시스템을 확충하여 전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합니다.

적극행정 확산 및 공공 서비스 강화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절차 개선 등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공헌

다양한 국민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역의 수요에 맞는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합니다.



윤리경영 및 공공서비스 강화

내부 견제 시스템 강화로 부패 사전 차단

부패의 사전 근절을 위해 일상감사 등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 컨설팅 지침 제정, 적극행정 면책 규정 신설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자체 감사 대상 직원의 자기변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내부 변호인 제도를 개선해 감사 처분에 대한 수용도를 높였습니다.

부패근절 강화	적극행정 활성화	감사 수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영향평가 지침 제정 일상감사 대상범위 확대 일상감사 전담조직(부)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컨설팅제도 지침 제정 감사소명제도 운영지침에 적극행정 면책 반영 적극행정 면책 매뉴얼 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변호인 신청대상 및 자격 범위 확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절차 개선으로 대국민 공공서비스 향상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 중 농지연금,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용허가 제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과 함께 업무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개선사항	기존	개선
농지연금 압류방지계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추심 과정에서 농지연금 수급 계좌 압류 사례 발생 고령 농업인 생계에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및 사업지침 개정으로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출시 농지연금 가입 고령 농업인의 최저생계비(185만원) 수급보장
공사 소유 농지의 임차인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소유 농지 임대 시, 임차인 요건 해당 지역 거주 농업인으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 임차인 요건을 청년 창업농, 귀농인, 비농업인 까지 확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관리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지역본부장 승인, 감사실의 일상감사, 착준공계 제출 등 복잡한 행정 절차로 국민 불편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본부장 승인면적 상향(1,000m²), 일상 감사 대상에서 제외, 착준공계 제출 대상 시설범위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편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의 지목 변경 시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인터넷 지로방식으로만 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가 운영하는 농지공간포털을 통해 수납할 수 있도록 납부 방식 다양화

지역사회 코로나19 극복 적극 동참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14억 원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보유 부동산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용자 중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4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간 최대 50%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고 연체료 전액 면제를 통해 총 1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회 공헌 캠페인으로 코로나19 피해 9.3억 원 지원

코로나19로부터 침체된 지역 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급여를 반납하고 외국인 근로자 이탈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 일손 돕기, 꽃 소비 캠페인 전개 등으로 지역사회에 총 9.3억 원의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KRC 사회공헌 캠페인		
급여반납(184백만 원) • 임직원 급여 자발적 반납으로 코로나19 취약계층 1.8억 원 전달	성금모금(40백만 원) • 대구·경북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직원 성금 40백만 원 전달	농촌 일손 돕기(2,849명) • 외국인 근로자 이탈에 따라 일손 부족 농가 지원 195회 2,849명
취약계층 지원(60백만 원) • 복지시설 운영 중단으로 고립된 독거노인 및 불우청소년(1,800명) 대상에 도시락 및 김치 제공	꽃 소비 캠페인(240백만 원) • 행사 취소로 위축된 화훼농가 꽃소비 지원(45만 송이) - 1Table 1Flower, 대형 화훼장식	지역경제 활성화(15억 원) • 나주 쌀 기부 프로젝트(22백만 원) • 지역농산물 온라인 장터(60백만 원) • 지역상품권 구입(14억 원)

국가 재난 극복 적극 동참,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과 생활치료센터 제공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과 해외 입국자 증가로 격리시설이 부족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의 인재개발원(안산시 소재)을 해외 입국자 3,891명의 격리시설로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시설 내 감염, 사고 발생 방지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24시간 당직 근무, 응급의료기기 배치 등 인적, 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또한 12월 11일부터는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어 경증·무증상 확진자의 신속한 치료지원에 동참했습니다.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 지원기간 : 108일('20.5.17~9.1) • 지원인원 : 6,852명(격리자 3,891명, 관리인력 2,961) ※*인재개발원 시설물 이용 및 운영기준에 따른 시설사용 금액 : 379백만원
생활치료시설	• 임시생활시설 사용 종료 후 생활치료 센터 사용 적극 협조 - 안전대책본부 생활치료 센터 지정(12.11) 사용 대기중 - 병상부족에 대응하여 경증·무증상 확진자의 신속한 치료지원



자원 개방과 적극행정으로 지역주민 복지 향상

농업용 저수지, 지역주민 휴양공간과 관광 소득원으로 탈바꿈! 우수사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중 192개 저수지가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춰 수변공원으로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 진행 중입니다. 장성호의 경우 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판매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라는 규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업 기반시설 부분 폐지 후 지자체에 매각하여 판매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방문객수 × 전남지역 당일 여행 1인 평균 지출액(81,000원)

적극행정으로 종전부동산을 지역주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본사의 지방 이전으로 철거 예정이었던 종전부동산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더 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1년 체결 예정이던 무상임대 계약을 2020년 7월로 앞당겨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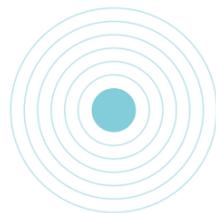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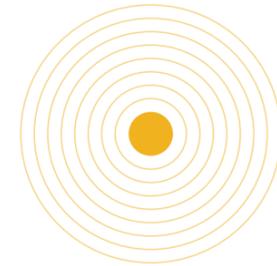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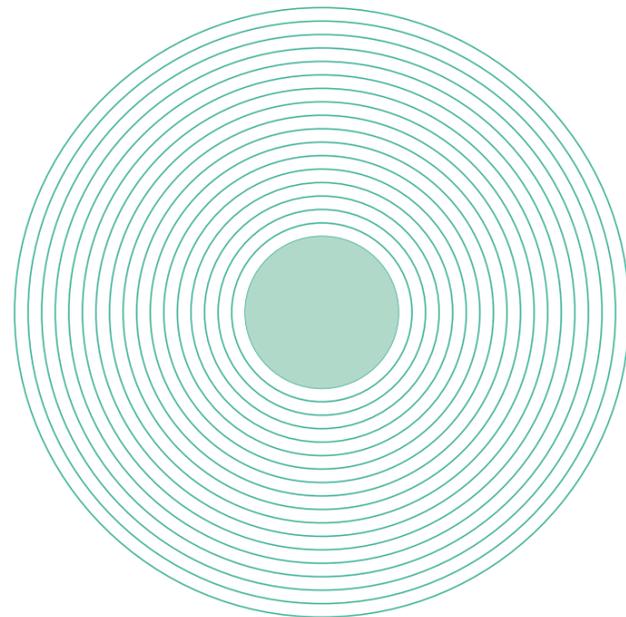
2020

KRC 사회적

가치창출 ANNUAL REPORT 농촌

우수사례집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적극행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농어촌의 사회, 경제, 문화적 가치창출을 실현한 우수 사례를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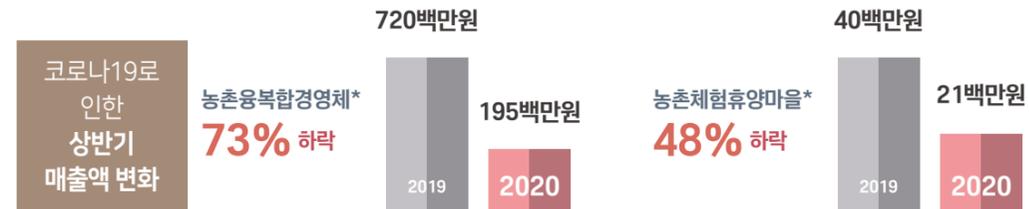
.....
체험도 배달되나요? 농촌체험키트로 코로나 19 극복!	46	
.....
농촌의 내일을 청년농에게 심다, 청년농 맞춤형 농지 지원	50	
.....
취약계층에게 더 큰 가능성을! 협동조합설립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54	
.....
해외 기술용역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58	
.....
풍요로운 미래를 나누는 공익형 태양광발전	62	
.....
농어가 부담은 줄이고, 소득은 올리고! 농어촌팹그린뉴딜	66	
.....
산불진화 골든타임 확보,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원합니다!	70	
.....
신기술 개발부터 보호까지, KRC 중소기업 동반성장 A to Z	74	
.....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회적 농장」	78	
.....
도시 아이들, 농촌으로 유학가다!	82	
.....
농업용 저수지,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86	
.....

체험도 배달되나요? 농촌체험키트로 코로나19 극복!!

□ 일자리 창출 □ 사회통합 □ 안전·환경 □ 상생·협력 ■ 지역·발전 ■ 적극행정 ■ 코로나19극복

코로나19로 시작된 위기

코로나19로 일상 속 거리 두기가 생활화되면서 농촌마을을 찾는 방문객 수도 급감했다. 방문객의 감소는 농촌마을 기업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평균 매출액이 농촌융복합경영체는 73%, 농촌체험휴양마을은 48%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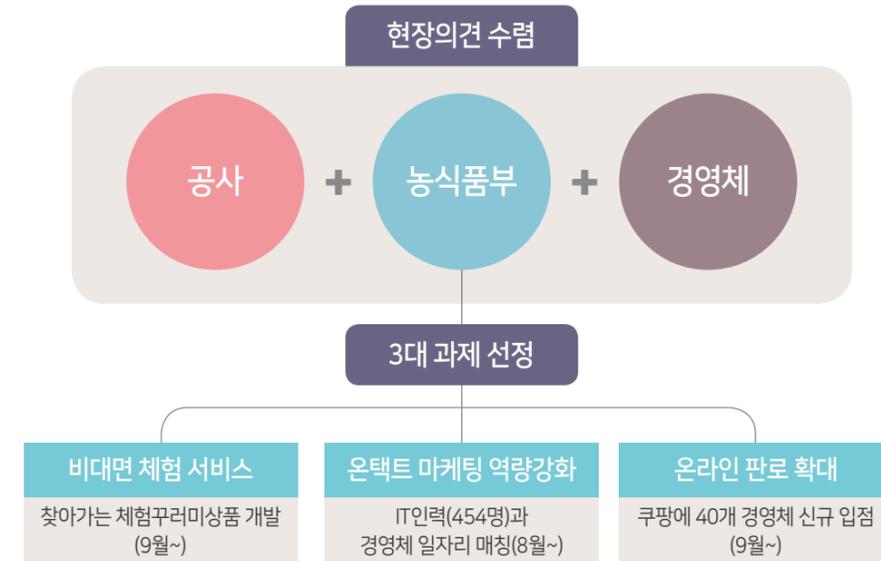
*농촌 융복합 경영체란? 농촌을 기반으로 농산물 가공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기업(총 1,909개소)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란? 도시민에게 생활 체험·휴양 공간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민 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기업(총 1,151개소)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맞대는 협력의 힘

변화의 시작은 농촌융복합 경영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부, 농촌융복합 경영체는 머리를 맞대고 기존 방식의 서비스를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농촌융복합 경영체 코로나19 극복 3대 과제'를 선정하고, 고객을 위해 농촌 체험 재료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꾸러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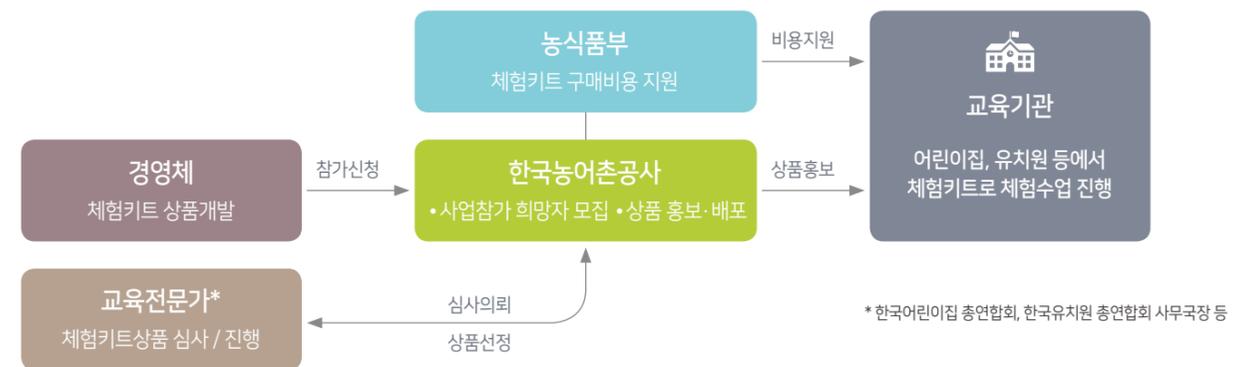
코로나19 극복 농산업 비대면 서비스 & 온택트 마케팅 강화 3대 과제 선정



막다른 곳에서 다시 힘을 모으다

농촌체험키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체험키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체험키트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한국 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등 교육 전문 기관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품화할 체험키트를 30개를 선정하였다.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체험꾸러미 비용의 80%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총 200개소에서 체험키트 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이 초기에 마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촌 융복합 농촌체험키트 추진체계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국장 등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생각의 전환

이렇게 시작된 농촌체험꾸러미 사업은 경영체와 교육기관의 높은 호응으로 10월부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까지 '농촌체험키트'로 사업 명을 달리하여 확대되었다. 코로나19로 현장체험 진행이 어려웠던 도농교류 협력사업*과 자유학년제**의 현장체험사업을 현장체험과 농촌체험키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방식을 유연화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농촌체험키트를 신청한 교육기관은 연말까지 총 483개소에 달하게 되었다.

***도농교류 협력 사업이란?** 농업·농촌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농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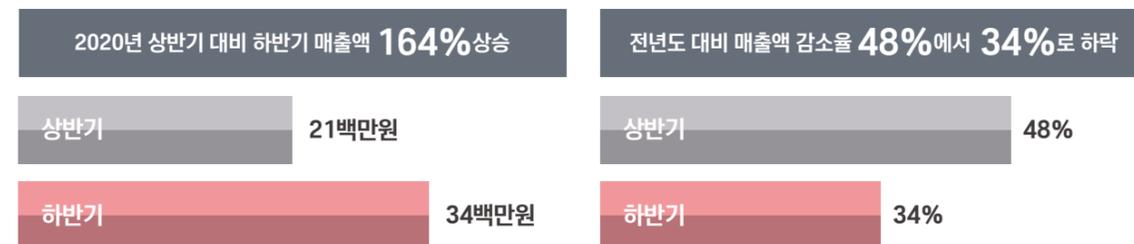
****자유학년제 현장체험 사업이란?** 중학교 학생들을 수혜 대상으로 교내 수업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농업·농촌 미래 성장 산업 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구분	어린이에게 찾아가는 농촌체험꾸러미	비대면 농촌체험키트 지원 사업
대상	농촌융복합경영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내용	전국 200개 소 어린이집 대상 구입비용 80% 지원(자부담 20%)	초·중교, 어린이집·유치원 483개 소 구입비용 80% 지원(자부담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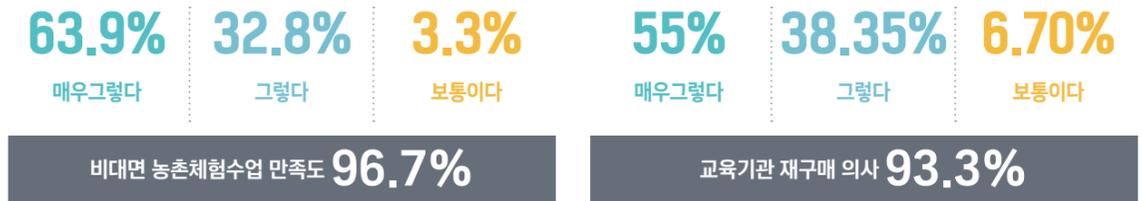


'함께'라는 이름으로 거둔 결실

농촌체험키트사업 추진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매출액은 조사 결과 상반기 대비 1.6배 이상 증가했고, 매출액 감소율은 전년도 대비 상반기에 48%에서 하반기 34%로 하락폭이 감소했다.



교육기관의 만족도도 높았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비대면 농촌체험수업 만족도는 96.7%, 재구매 의사 또한 93.3%로 높게 나타났다.



지속 가능한 희망을 만드는 이야기

날씨나 전염병 등 외부 환경에 따라 현장 체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던 종전의 현장체험 방식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계기로 농촌체험키트 사업이라는, 시간이나 공간의 물리적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매출액을 유지할 수 있어 경영난에 힘들어하던 농촌 경영체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021년에도 새로운 체험 꾸러미 상품을 개발하고,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인터뷰



영농조합법인 에듀팜

"코로나의 긴 터널 속 희망의 빛줄기를 만나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학생단체 체험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한국잠사박물관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고, 찾아가는 체험키트라는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의 물꼬를 트고 재기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천 동진유치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교실 밖 체험학습을 교실 안으로"

코로나19로 매년 진행하던 체험학습을 할 수 없게 되어 어린이들이 학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도 답답한 실내 학습으로 지쳐있었는데, 이번 체험키트 사업으로 교실 안에서도 안전하게 고추장 만들거나 반려 식물 키우기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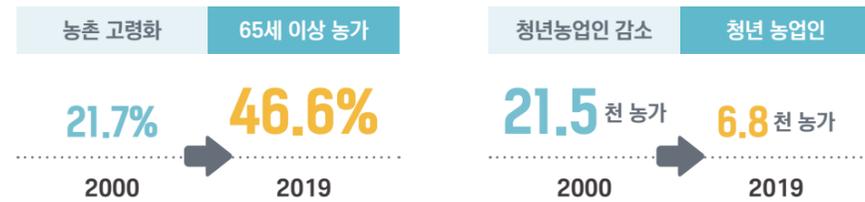
농촌의 내일을 청년농에게 심다, 청년농 맞춤형 농지 지원

■ 일자리 창출 □ 사회통합 □ 안전·환경 □ 상생·협력 ■ 지역·발전 ■ 적극행정 □ 코로나19극복

농촌, 고령화의 위기에 놓이다

농촌 고령화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농가 비율이 47%에 육박하고, 농촌의 청년 농가는 매년 2천 농가씩 감소하며 고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촌 고령화 추이



농촌의 내일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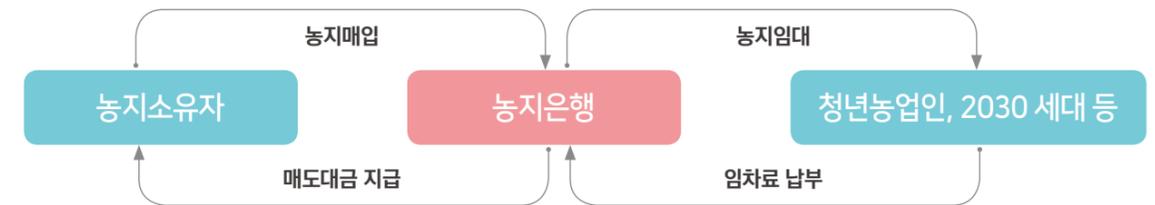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진흥지역의 우량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청년농업인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청년 창업농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농지 및 시설 확보(58%, '20.1월 갤럽조사) 임을 고려할 때 청년의 농촌 유입 및 성공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농지은행사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자금-기술-교육' 지원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와 '청년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자체에서 청년 창업농 선정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협은 자금 지원, 농촌진흥청은 기술 지원을 담당하며 공사는 농지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3년 이하 영농경력의 청년농업인 (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선발된 청년 창업농이 농지를 신청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젊은 청년층의 사업 참여 편의를 위해 포털을 정비해 온라인으로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청년층에게 지원할 농지를 충분히 매입하기 위해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20%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온-오프라인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전국의 청년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지와 제도 개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듣고 있다.

청년 영농정착 지원 사업



제도 개선으로 농지의 수요와 공급에 균형을 찾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농지와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가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지은행에서 매입할 수 있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 기금법」에 의해 고령·은퇴농의 농지로 한정되어 있어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청년농은 거주지에서 가깝고 고소득 발작물 재배가 가능한 농지를 희망하는데, 기존의 매입단가와 소유자 제한 등으로 이런 농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는 「농지은행 지침 개선 TF」를 구성하고, 매입농지 제한을 풀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의 매입면적, 매입단가, 매입대상 등 매입 조건 제한을 완화시켰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제도개선 주요사항

구분	기존	개선
매입면적 기준 완화	1,983m ² 이상	1,000m ² 이상
매입단가 현실화	(논·밭) 2.8~5만원/m ²	(논) 2.8~9.2만원/m ² , (밭) 2.8~10.5만원/m ²
매입대상 확대	농업인 소유 농지	상속·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 소유농지 추가

청년농 농지지원 확대를 위한 농지은행 제도 개선은 2020 대한민국 제안 정책 명장(행안부 주관), 2020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콘서트(농식품부 주관), 2020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농식품부 주관)에서 입상하였고, 2020스마트한 농식품부 규제 혁신 20선에 선정되어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적극행정으로 청년농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 개선 추진 과정 중 코로나19로 인해 법령 개정이 지연되자 개정사항의 시급성과 영농기를 고려한 적극행정으로 시행령 개정사항을 우선 시행하였다.('20.5) 또한,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중점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언론 보도 및 방송광고, 온라인 배너,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률을 도모하였다. 이런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 확대, 홍보 등의 노력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전년 대비 35% 상승한 1,574ha의 농지를 매입하고, 청년농업인 4,536명에게 3,594ha를 지원하였다.

2020년, 농촌이 더 젊어지다

청년농 맞춤형 농지지원 확대로 경작자 평균연령이 68세에서 39세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정상 임대료의 20% 수준으로 농지를 임대하여 청년농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해소했다.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항상 귀 기울이고 발 빠르게 움직여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어갈 것이다.

2020년 추진성과

(농지공급 확대) 청년농업인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전년대비 2030세대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확대

지원인원 (‘19년) 4,095명 ▶ (‘20년) 4,536명(10.8%▲)	지원면적 (‘19년) 3,543ha ▶ (‘20년) 3,594ha(1.4%▲)
---	--

(농업 인력구조 개선) '20년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경작자 평균연령 29세 감소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도자 평균연령 68세	임차자 평균연령 39세 ▶ 평균연령 29세 감소
-------------------------	-----------------------------------

(청년농 부담 해소) 저가의 임대료로 청년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공공임대농지 임대료 평균 53만원 / ha(전국 임대료 259만원 / ha의 20% 수준)



사례

"제도 개선으로 꼭 필요한 농지를 지원받다"

2019년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에 사는 '18년 청년창업형 후계 농업경영인 장OO씨는 거주지 인근의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시행령 개정 추진 및 적극행정 사업 우선 시행을 통해 공공임대 농지를 매입하여 장OO씨의 주거지 인근 거리에 있는 우량농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지원하였다. 장OO씨는 당초 주거지에서 44km(약 48분 소요) 떨어진 농지에서 영농 중이었으나, 제도 개선과 임대 지원에 따라 12km(약 16분 소요) 농지를 확보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장OO씨의 거주지와 농지 간 거리



취약계층에게 더 큰 가능성을! 협동조합설립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 사회통합 □ 안전·환경 □ 상생·협력 ■ 지역·발전 ■ 적극행정 ■ 코로나19극복

공사 자원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62.3% 수준에 그치며 도농 간의 소득 격차는 커져가고 있다. 2010년의 66.8%와 비교해도 크게 하락한 수치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상대적 빈곤율 증가는 농촌 취약계층의 소득 안전망 확충이 농촌 행정의 시급한 과제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 저수지, 양수장 등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14천 개의 시설물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이 같은 시설물 및 용수 관리 업무에 지역민을 채용하는 것으로 농촌의 지역민들에게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는 106백여 명을 채용하여 1인당 약 3백여만 원의 농업 외 소득을 창출하였다.

협동조합 설립으로 사업 추진의 동력 마련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지역주민 중에서도 도움이 더욱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고민 하였다. 우선 시설물 관리 업무 채용이 입찰을 통해 건설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개별 참여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였다. 업체를 통한 채용은 지역 취약 계층의 일자리 제공에 한계가 있고, 급여 또한 최저시급으로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설물 관리 협동조합」의 설립 지원을 결정하고, 시범적으로 2019년 고령군에서 농어촌의 저소득층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지역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를 위해 조합원의 자격을 '만 55세 이상의 고령군 거주 농업인으로서 연간 소득 17백만 원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영농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조합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다.



조합원이 모집된 후에는 직원들이 함께 정관·설립 신고서 등 행정서류를 준비하고 지자체 신고, 등기 준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2019년 3월 고령지역 내 6명의 고령농업인으로 구성된 대가실업 협동조합이 설립 되었다. 대가실업 협동조합은 2020년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자체와 7건, 약 48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참여 조합원의 소득은 시급 기준 19천 원 정도로 최저 시급보다 2.3배 높은 수준으로, 지역 취약계층 농업인의 소득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협동조합 설립으로 인한 변화



(소득)일용인부 급여 최저시급 적용

시간당 19,110원 수입확보로 최저 시급 대비 2.3배의 소득 증대 가능*



* 개진지구 준설 계약 기준 운영경비(20%) 제외 금액 7,643백만원에서 소요자원 10일, 5명, 8시간으로 산출 ▶ (9,554백만원×80%)/(10일×5명×8시간)=19,110원

(지역 취약계층 고용) 건설업체를 통해 고용하므로 타지역 일용근로자 고용 ▶ 고용인부의 지역애착심 및 업무 이해도 부족으로 준공물 품질 저하

(지역 취약계층 고용) 지역 거주 취약계층(고령농, 청년농)으로 구성 ▶ 지역 거주민으로 구성하여 지역 애착심 및 업무 이해도가 큼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으로 더 큰 가능성을 열다

대가실업 협동조합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내부와 지자체, 지역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일반 협동조합은 공공조달사업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더 큰 가능성을 만드는 일이었다.

***사회적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하는 조합으로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국가계약법 제26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 구매 용역 발주건에 대해 수익계약 가능



성과의 확산으로 결실의 기쁨을 키우다

더불어 고령 지사의 협동조합 설립 모델을 타지역으로 전파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노력의 결실로 2020년 의성지역에서 저소득 청년 창업농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추가로 설립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만 40세, 농외소득 37백만 원 이하인 농업인'을 자격조건을 정하고, 총 6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이후 총회, 정관, 사업 계획서 등의 행정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마침내 10월 「의성 푸른 협동조합」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협동조합 설립 지원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아 2020년 정부(농식품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재 경북지역에 시설물 협동조합 3개소를 추가 설립 추진 중이며, 202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확대 시행 시 약 23억 원의 농업인 소득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주요 실적/성과

(지역민 소득창출) '19년 설립한 고령지사 '대가실업협동조합' 는 '20년 7건, 약 4,800만 원의 계약 체결 - 참여 조합원 시급 기준 19천 원의 소득 창출로 최저 시급보다 2.3배 높은 수준의 소득 보장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 공공기관 등의 우선 구매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고령 지사 '대가실업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 신청(농식품부 검토 중)

(협동조합 설립 확대) 지역 청년농업인을 위한 「의성 푸른 협동조합」 추가 설립(6명)

인터뷰

대가실업협동조합 박정원 조합원(59세, 감사)

Q 올해 시설물관리 협동조합에 참여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A 농한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힘이 납니다. 작년에는 주로 고령지역 내에서 준설, 퇴적물 제거 일을 했었는데, 올해는 주변 지역인 칠곡군과 달성군에서도 시설물 관리 일을 맡겨주셔서 소득도 작년보다 늘어 생활에 보탬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로 시설물도 깨끗이 정비되고 농사용 물도 잘 흘러가게 되어 보람도 매우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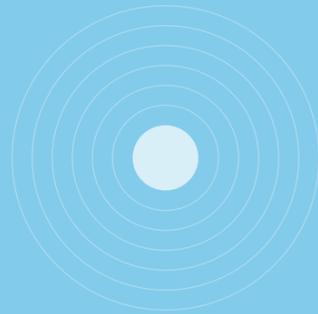
Q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을 추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이 되면 지자체나 공공기관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어 계약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 요건에 부합이 되어 지사에서 변경 설립을 지원해 주셨고, 현재 최종 심사만 남겨두었다고 하더군요. 변경이 빨리 완료되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 한국농어촌공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농업정책이 주로 2030세대나 귀촌 농업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가 더욱 줄어든 상황에서 협동조합 설립은 우리와 같은 고령 저소득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공사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 주신 일이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하여 농식품부에서 큰 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농어촌공사의 본래 업무가 아니겠지만 저소득 농업인들의 일자리까지 챙겨주는 이런 일이 말 그대로 적극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례를 본보기로 의성군에서도 공사의 지원으로 협동조합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다른 농촌지역에도 이러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 창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기술용역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 사회통합 ■ 안전·환경 ■ 상생·협력 □ 지역·발전 □ 적극행정 □ 코로나19극복

새로운 블루오션의 필요성

한국농어촌공사는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에 걸쳐 33km의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였다. 이는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장 방조제로서 국토의 지형을 바꾼 역사적인 사업이었다. 새만금 방조제 축조 사업에는 사업비 2조 9천억 원이 투입되고, 18개 건설사가 참여하여 237만 명의 고용효과를 이끌어 내며 지역 경제 부흥 및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분포되어 있는 대부분의 간척 적지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 신규 간척 사업 시행은 요원한 실정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만한 국내 간척 사업은 사실상 종결된 상황이다.

새만금 방조제 축조 모습



신남방 정책으로 해외에서 다시 찾은 기회

새로운 기회는 해외에 있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자카르타 방조제 축조를 요청받은 것이다. 자카르타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과도한 지하수 추출 등의 이유로 연평균 7.5cm 이상 지반이 가라앉고 있어 바닷물이 해안제방 위로 범람하는 홍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1974년부터 2010년까지 이미 2~2.5m의 지반이 가라앉았으며, 이대로라면 2040년에서 2050년경에는 자카르타 북부 해안지역의 약 40% 이상이 바다 아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조제 축조가 필요해진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신남방 국가들과 경제 파트너로서 관계 형성에 큰 힘을 쏟아왔다.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정책의 교두보로서 1976년 처음 진출한 이후, 1983년 자카르타에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며 약 40년간 협력 파트너 국가로 신뢰를 쌓아왔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례인 우리의 새만금 방조제 축조 경험과 간척 기술력을 높이 사 2016년 공사에 공식적으로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

자카르타의 홍수 피해 현황



세계 최고의 기술로 최초의 사례를 만든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방조제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 말부터 자카르타 방조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종합 계획 수립을 추진해 오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는 대규모 농지 확보와 국토 확장이라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자카르타 방조제는 재해 방지가 주목적인 만큼 목적에 보다 적합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 중이다.



자카르타 방조제는 중간에 5개 교량을 연결해 총 33km 중 3.4km 구간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개방형 방조제로 구상 중이며, 간척지 내부의 개발 계획 수립과 수질개선 및 홍수관리 방안, 자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컨설팅하고 있다.

자카르타 방조제 VS 새만금 방조제

구분	자카르타 방조제(20조원)	새만금 방조제(22조원)
목적	해수 월류 및 홍수방지(6,800ha)	농지 및 수자원 확보(40,900ha)
방조제	연장33km 높이20m, 폭169m	연장33.9km 높이36m, 폭290m
공사여건	수심12m, 조위차1m	수심30m, 조위차6m
조감도		

20조 대형 프로젝트로 국내 건설사 해외 진출 견인

자카르타 방조제 축조사업은 2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새만금 방조제 축조 기술력으로 설계 중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대규모 방조제 건설 경험이 있는 건설사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한국 건설사들의 추수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본설계 단계(사업비 90억 원)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민간 4개사(민간참여 인력 53명)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만약, 공사가 세부설계(약840억 원 추정)에도 참여할 경우 50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방조제 건설 및 내부개발 공사 착수(약20조 원) 시에는 사업 기간 50년 동안, 연간 5,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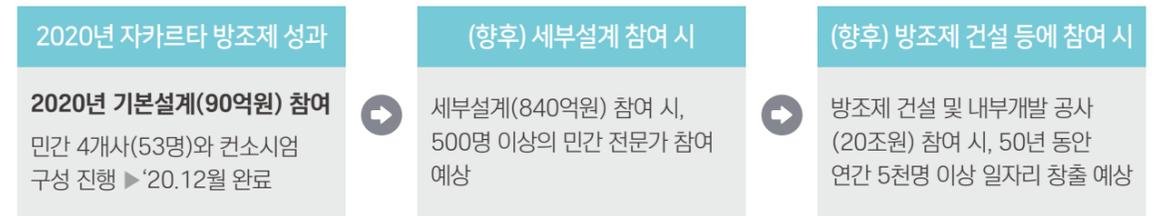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카르타 방조제를 비롯해 21개, 총 1,075억 원의 해외용역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0년에는 총 120억 원의 수익이 창출되었고, 이 중 54.5억 원이 민간기업의 성과로 기록되었다. 이를 통해 54.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전 사업 기간을 통해 513.2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과 신뢰로 쌓아올린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기술 용역 분야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낼 것이며, 이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요 성과

(자카르타 방조제) 2020년 공사 기본설계 참여 완료, 향후 세부설계 및 방조제 건설 등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해외용역사업) 공사는 자카르타 방조제를 포함해 총 21개, 1,075억 원의 해외용역 사업을 추진



※ 민간고용 창출효과 : 코이카 3급 기준, 1억원/인

인터뷰



"공사로 인해 해외 진출의 기회를 얻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 해안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향후 본 사업의 추진 및 참여를 통해 도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넓은 시장에 우리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 모니터링을 통해 본 사업 단계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공기관과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풍요로운 미래를 나누는 공익형 태양광발전 「새만금 햇빛 나눔 사업」을 중심으로

□ 일자리 창출 □ 사회통합 ■ 안전·환경 ■ 상생·협력 ■ 지역·발전 □ 적극행정 □ 코로나19극복

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 신재생에너지 확대 흐름

정부는 수년 전부터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최근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방향을 설정하였고, 제9차 전력 수급기본계획('20. 5월)에 따르면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5~40%로 확대될 예정이다.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

원전의 점진적 감축 등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석탄발전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대폭 확대 제시

(8차 계획)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에 따른
전원 Mix 기본틀 정립 (원전▼, 신재생▲)



(9차 계획) 안정적 전력수급 전제 친환경 발전
전환 가속화 (석탄▼, 원전▼, 신재생▲, LNG▲)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로,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이 있고,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이 있다.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증가, 늘어가는 재정 부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농업기반시설의 종합 관리는 공사법 제1조에 포함된 공사의 주요 임무이다.

문제는 연간 3천700억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 비용이 농업생산 기반의 노후화에 따라 그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여건에서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사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연도별 유지관리 비용 및 공사 자체총당금

(단위 : 백만원 / 결산금액 기준)

연도	총액	국고		자체총당금	
		금액(A)	비율	금액(B)	비율
2016	338,252	163,000	48.2%	175,252	51.8%
2017	334,636	154,700	46.2%	179,936	53.8%
2018	364,625	162,232	44.5%	202,393	55.5%
2019	374,454	150,000	40.1%	224,454	59.9%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 확보를 위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도

태양광 발전은 주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지가가 저렴한 농어촌에서 이뤄진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재생 에너지 확산 흐름에 발맞추는 동시에 농업생산시설의 유지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 등 시설자산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고안하게 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관리 중인 전국 3,411개의 농업용 저수지와 이 밖에도 방조제 등 다양한 시설자산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이 충분히 생산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2012년부터 공사가 보유한 농업 기반 시설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시설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순탄치 못한 사업 추진 과정, 부정적인 주민 여론에 맞닥뜨리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주된 이유는 태양광 발전 지역 주민들이 정작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잘못된 오해로 인한 것들이었다.

지역상생형으로 재탄생한 태양광 발전 사업, '새만금 햇빛 나눔'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상생을 위해 직원들의 치열한 고민이 시작됐다. 사업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민은 물론 지역 기업들까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재구성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개발하고 2019년부터 이익 공유형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새만금 햇빛 나눔 사업의 핵심 아이디어는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 주민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사업이다. 사업 절차가 늘어나고 복잡해지더라도 농어촌 지역에서 수행하는 태양광 발전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배제되지 않고, 수익이 최대한 해당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짰다. 또한 발전수익 중 일부를 농어촌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수익이 바로 농어촌 주민에게 귀속되는 방식을 택했다.

사업 체계도



※ 공사는 새만금 방수제, 저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수익을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

해결책 하나. 주민과의 이익 공유 추진 - 마을발전소 건립과 투자 수익 최소 7% 보장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유형은 사업 규모의 5% 이내에서 마을법인이 운영하는 마을발전소 건립 지원 (또는 숙원사업 지원)이며, 두 번째 유형은 발전 시설 설립 투자금의 일부(10%)를 주민이 투자하면 확정수익의 최소 7%를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무상 건립한 마을발전소의 발전 수익은 마을 공동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 햇빛 나눔 사업의 경우 투자 수익의 최소 7% 보장 방식을 취한다.

해결책 둘. 지역 기업과의 상생 - 건설 공모 최초 시행 및 지역상생 지표 신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새만금 햇빛나눔 사업을 진행하며 최초로 공모를 통한 '민간 직접 건설 분양'을 추진하였다. 업체 선정에 '지역상생' 지표를 신설하여 지역 기업의 시공 참여율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은 50%, 지역 기자재는 전체 사용분의 90% 이상 활용하기로 하였다. 시공사 역시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해결책 셋. 지역 주민과의 소통 확대 - 대화와 홍보로 공감대 형성

더불어 적극적인 대화와 홍보를 통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를 해결하고 있다. 이전에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지만, 새로운 사업체계에서는 주민소통 분야를 전면 개편하여 주민 동의를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와 새만금사업단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하여 비대면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지역소득 창출과 시설 유지관리 자원 확보에 기여하는 'KRC형 태양광 발전'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햇빛 나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42년까지 매년 9억 원의 수익으로 총 180억 원의 유지관리 자원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지역주민은 20년간 최소 7% 고정이율의 투자 수익을 수령하게 된다. 또한 지역 기업 50%의 시공 참여, 지역 기자재 90% 사용, 시공사의 지역주민 우선 고용으로 운영·건설 분야 7.8만 명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지역상생을 고려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전국 총 223지구에서 재생에너지 300MW 발전을 계획 중이다. 향후 223지구 준공 완료 후에는 매년 810억 원의 자원 확보가 전망된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시설 유지관리 자원 확보는 물론 농어촌 지역 기업과 주민, 그리고 공동체에 훈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태양광 이익 공유 사업 현장



농어가 부담은 줄이고, 소득은 올리고! 농어촌사랑그린뉴딜

□ 일자리 창출 □ 사회통합 ■ 안전·환경 □ 상생·협력 □ 지역·발전 □ 적극행정 □ 코로나19극복

농산물 가격 절반이 냉난방 비용?

농어업 생산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물 단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냉난방 비용이다. 더구나 농어촌 지역의 냉난방 설비는 80% 이상이 유류시설로서 친환경 설비의 보급률이 떨어지고, 노후 설비도 많은 상황이다.

그린 농어촌, 지구의 내일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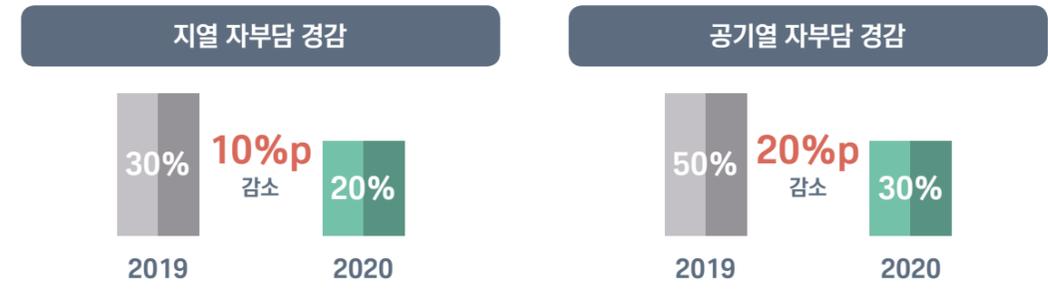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유류시설들을 지열, 공기열 등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것이 농어민의 경영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도 줄여 환경보호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판단하여 친환경 설비 교체사업인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일거양득의 상생을 만든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확대를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업비의 30~50%를 농어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선뜻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하는 농어가 많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농어의 의견을 적극 취합하고 지자체, 농림부와의 협의를 통해 농어업인 자부담 비율 제도를 개선 하였다. 또한 무상으로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 참여 농어의 모집에서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농어의 사업 참여를 유도, 확대하였다.

제도개선을 통한 전년대비 농어민 자부담 비율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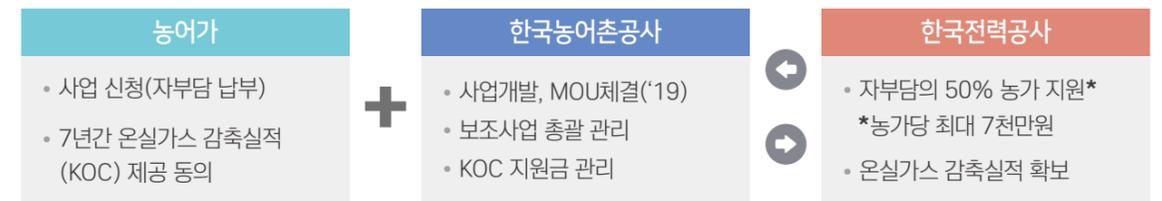
친환경 설비교체로 일석삼조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농어의 짐을 맞들다

① 추가 지원책 마련으로 농어의 부담은 최소한으로!

한전의 농어촌 상생기금을 활용한 지원금으로 3개 농가 약 1.1억 원의 농어가 자부담 비용을 추가로 경감시켰으며, 이는 2019년도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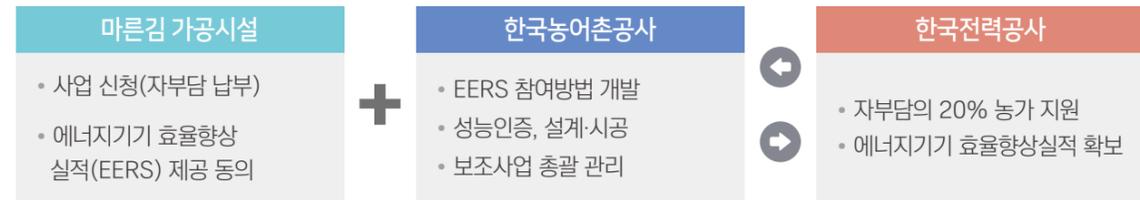
② 정책 사각지대인 수산 가공분야까지 확대

올해부터는 수산 가공분야에도 친환경 설비 보급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농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 수혜를 받지 못했던 어가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2020년 6월, 한국전력공사 EERS*와 연계한 신규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친환경 설비를 도입한 어가를 대상으로 어업인 추가 소득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결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도입한 김 가공시설 등 8개 어가에 1.4억 원을 지원하며 어가의 부담을 추가로 경감시켜줄 수 있었다.

* 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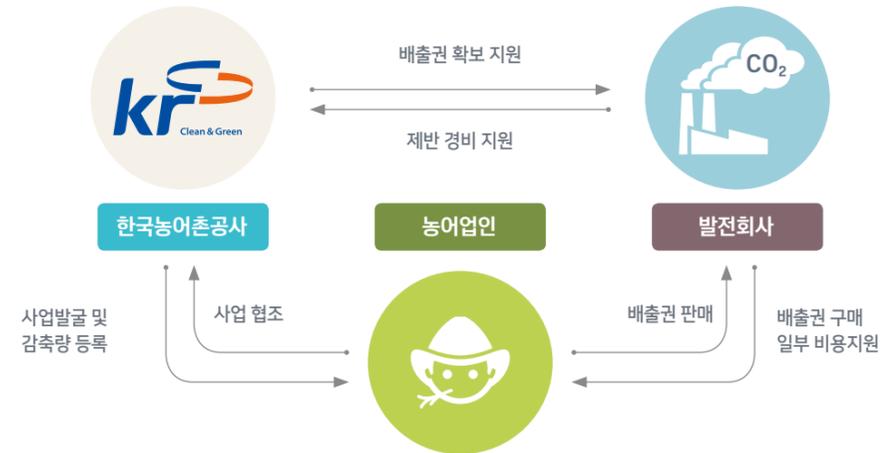
고흥 진영수산 대표 최00

"전기요금 걱정 없이 고품질 마른 김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남 고흥에서 우리나라 식품 수출 1위인 마른 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 공장은 항상 계약 전력보다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 매달 3천만 원이 넘는 전기 요금은 운영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농어촌공사 덕분에 성능이 보장된 히트 펌프식 김 건조기로 바꾸면서 김의 빛깔은 더 좋아지고 전기 요금은 50% 줄어들어 일본, 중국과의 수출경쟁에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올해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업사업을 통해 총 11개 농어가에 총 247백만 원을 지원하여 농어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협업 체계는 향후 에너지 절감에 의한 인센티브를 통해 우리 농어민들이 다양한 정책적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중부발전과의 협업으로 탄소배출권 시장 진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용으로 농어민은 배출권 판매로 인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배출권 판매실적은 발전사에 귀속되어 농어민과 발전사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사업구조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 총 10개 농어가 (8농가, 2어가)가 탄소배출권 판매 사업을 등록하였고, 향후 가구당 평균 4.8백만 원의 농외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연계하여 농외소득을 창출함과 동시에 연간 1,455톤에 이르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국가에서 기업별 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배출이 많으면 배출권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고, 반대로 남으면 팔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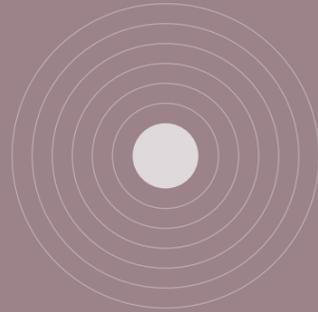


제주 서귀포 조생감 굴 농장주 강00

"농어촌공사 덕분에 쓸쓸한 농외수익도 얻고, 환경보호도 하게 되었네요."

제주에서 감귤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덕분에 교체하게 된 수열 히트펌프가 배출권 판매를 통해 쓸쓸한 수익까지 가져다주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게다가 제 영농활동이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제 상품에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불진화 골든타임 확보,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원합니다!



□ 일자리 창출 □ 사회통합 ■ 안전·환경 □ 상생·협력 □ 지역·발전 ■ 적극행정 □ 코로나19극복

예측불허 산불로 농업용수 관리에 위기가 오다

산불은 그 피해 범위가 넓고 초기 진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특히 농어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0건이었으며, 총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배인 857ha에 달했다.

최근 5개년 국내 산불발생 현황



산불 주관부서인 산림청은 산불이 발생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주변 저수지를 소방용수 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재지점과 가장 가까운 수원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수원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수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관리와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잦은 가뭄과 예측 불가능한 산불로 농업용수 관리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불 진화 활용 이후 저수지 저수율 변화



경북 안동 산불 ('20.04) : 호민저수지 약 10만m³ 사용



강원 고성 산불 ('20.05) : 도원저수지 약 11만m³ 사용

산불 재해 극복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다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헬기가 인근의 저수지를 담수지로 지정하여 산불 진화에 나서게 된다. 소방헬기에 의한 산불 진화 시 담수지 까지 거리가 5km 늘어날 때마다 공중 진화 효율은 18% 이상 감소한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초기 진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방당국이 저수지 위치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국 3,411개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며, 적정 수준 이상의 저수율 유지에 힘쓰고 있다. 이 때문에 산불 진화에 사용된 소방용수 내역을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하고, 나아가 산불 초기 진화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농어촌과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산불 진화 골든타임* 확보를 지원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산불 주관 부서인 산림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산불 발생 시 공사 관리 하 전국 3,411개 농업용 저수지의 정확한 위치 정보와 저수량 등 정보를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기관	협업내용
한국농어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공사관리 저수지(3,411개소) 위치 및 자료 연계·제공 평년대비 저수율 60%이하 저수지의 적극적인 용수확보로 안정적 산불진화용수 확보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불 발생 장소, 일시, 소방용수 사용 실적 등 현황자료 제공

이에 소방당국은 산불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를 신속하게 확보함에 따라 산불진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소방용수로 사용된 저수지의 저수율 감소분을 즉시 파악해 본연의 농업용수 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산불진화 골든타임이란?** 산불 발생 시 관련법 의해 최단거리** 취수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소방헬기 담수지로 활용해 산불 진화를 위한 소방용수를 확보하는 것. 화재지점과 소방헬기 담수지 거리가 5km 늘어날 때마다 공중 진화효율은 18% 이상 감소함.

저수지 여유수량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 지원까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불대비 여유 수량 확보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더욱 견고히 했다. 매년 산불 집중 기간을 대비해 전년도 영농이 끝난 후부터 강우량을 예측하여 저수율을 유지하는데, 협약 체결로 정확한 산불 방재 용수 양과 산불 발생 시기를 파악해 산불 방재에 필요한 여유 수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는 물 부족 저수지 27개소에 1,510만m³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관리하여 전국 저수율을 86%로 평년(71%) 대비 112% 이상 유지하면서 산불에 대비하였는데 내년부터는 산림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더욱 산불 방재 대비와 함께 본연의 업무인 농업용수 공급도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외에도 양 기관은 향후 산사태 관리체계·상류지역 수질관리·산림개발 등 산림재해 공동 대응을 위한 기반을 다져, 농어민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산불방재 협업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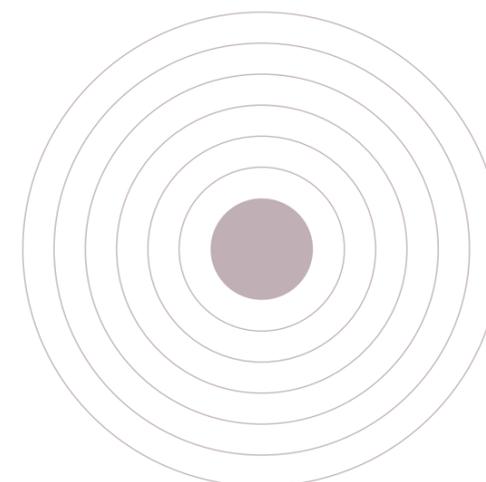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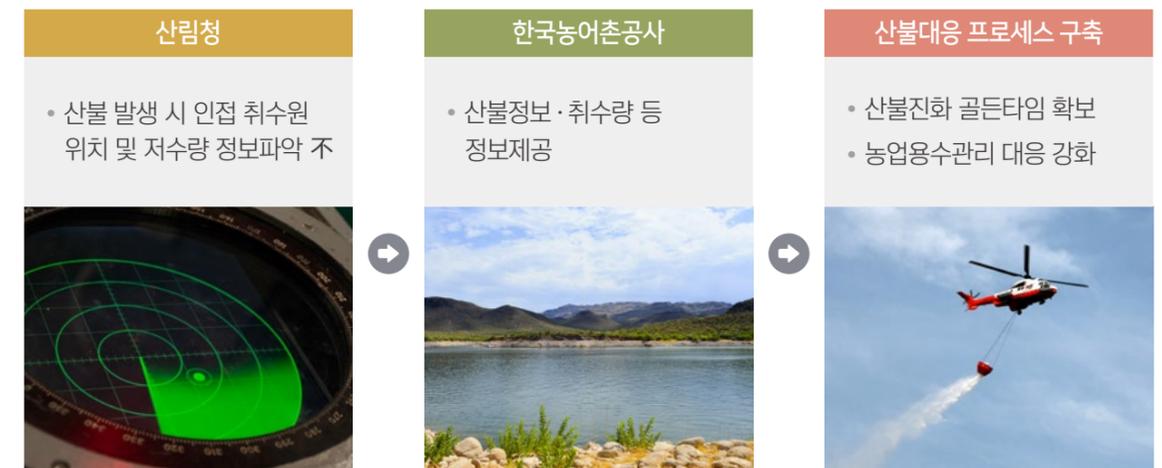


KRC 적극행정, 저변 확대를 꿈꾸다

대다수 국민들은 삼국시대부터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온 저수지에 대해 농업용수를 보급하는 국가 기반 시설이라고 알고 있다. 저수지는 이제 농업용수 공급뿐 아니라 주변 개발을 통한 관광지로 또 산불 용수원으로 다양하게 우리의 생활을 돕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유지관리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저수지를 농어촌과 농어민에 큰 위협이 되는 산불 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첨병으로 세우는 적극행정을 구현했다.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 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한 적극행정의 저변 확대를 이룰 것이다.

KRC 산불재해 극복을 위한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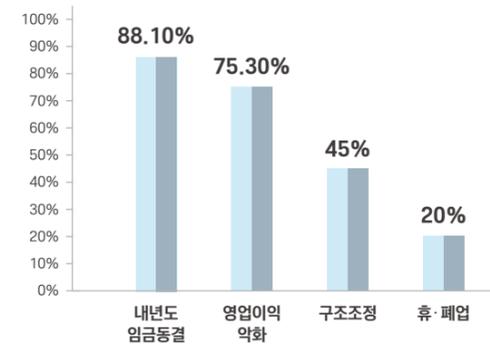


신기술 개발부터 보호까지 KRC 중소기업 동반성장 A to Z

■ 일자리 창출 □ 사회통합 □ 안전·환경 ■ 상생·협력 □ 지역·발전 □ 적극행정 □ 코로나19극복

코로나19가 몰고 온 중소기업의 위기

2020년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전반에 끼친 타격은 너무도 컸다. 그중에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이 속출하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 중소기업 600 개소 경영상황 설문조사

대다수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정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구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 협력업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그 결과, 협력사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영업이익의 악화와 이로 인한 인건비 등 경영비용 총당 어려움이었고 이로 인해 판로 확대나 신기술 개발이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다.

[신기술 개발 지원] 중소기업 기술 개발의 든든한 지원군 KRC 테스트 베드

테스트 베드(Test-bed)란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각종 신기술 및 제품의 성능, 효과 등을 시험하기 위한 환경, 설비를 이르는 말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토목 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자체 자산인 간척지, 저수지, 자체 실험 시설, 해외 사업 인프라 등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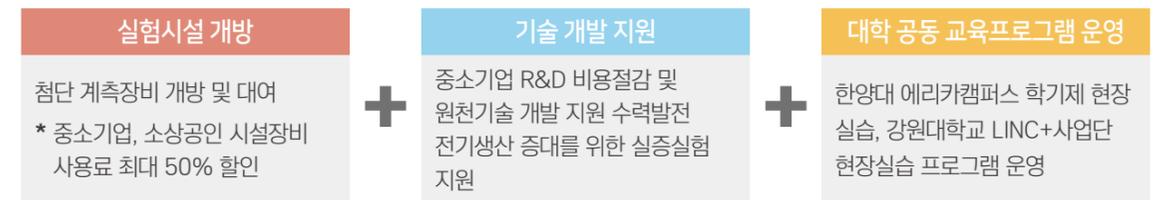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신기술 개발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개발과정에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현장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신규 판로를 확대하며,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까지 도모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공사자원	테스트 베드 제공 내용	2020년 실적
수리모형	• 대학교 현장실습 및 민간기업 실증실험 기회제공	대학실습프로그램 5건, 실증실험 2건
저수지	• 수질개선 실증시험 공고를 통해 실증실험 기회제공	실증시험 기회 10개 업체 제공
해외농업	• 해외 시범영농, 비료개발 등 실증시험에 필요한 비용지원	3개 기업 선정, 94백만 원 지원

KRC 테스트 베드 ① 국내 유일 수리시설 모형실험 시설 공유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수리시설 모형실험 시설 PIV실험수로라 불리는 입자 영상 유속계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중소기업 소규모 수력·파력발전장치 개발이 늘고, 이에 따른 실증실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대형실험 시설 운영지침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실험시설 임대 이용료 최대 50% 할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농어촌연구원 연구진들의 기술 및 연구 지원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실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수리시설모형 실험시설 공유



주식회사 에이치지이플러스 “기술 컨설팅으로 더 큰 기술력을 확보하다”

2020년 5월, 주식회사 에이치지이플러스에서 수력발전기 개발을 위해 PIV실험수로 시설 임대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험 도중 당초 목표한 전기에너지 생산량이 미달되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기술 컨설팅을 통해 업체 측 기본 설계안을 직접 수정해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그 결과 기존 대비 4배의 추가 전기 생산량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에 더해, 농어촌연구원 연구진은 업체에 연구결과 보고서까지 무상으로 제공하여 업체는 국내 최초 수력발전기 실증실험을 통한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하고, 농어촌연구원은 추가적인 공동연구 제안까지 받아들일 수 있었다.

KRC 테스트 베드 ②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저수지 수질개선까지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국 3,411개의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련 중소기업의 신공법·신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수질관리 선진화를 위해 농업용 저수지를 테스트 베드로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실제 수요 현장에 기술을 적용하여 효과 검증을 통해 관련 시장으로 판로 확보까지 할 수 있다. 또한, 테스트 베드 제공으로 한국농어촌공사도 전국 저수지의 수질개선 효율화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KRC 테스트 베드 ③ 중소기업 해외 진출의 발판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현지 실증시험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 사업 인프라를 이용해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줄여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사전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농기자재(비료 등) 수출 확대(매출액 1.2배 증가 추정), 일자리 창출(기업당 1명씩 채용)

[지원 기업 수 확대] '19년 2개 ▶ '20년 3개			
구분	A기업	B기업	C기업
진출국가	인도네시아 등	카자흐스탄, 러시아	베트남
실증시험	한국 농약, 비료 시험	스마트팜 현지 실증시험	사료용 옥수수 시범영농

[신기술 도입] '신기술 등록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신기술 적용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 중소기업의 우수한 신기술을 등록·적용하여 신규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KRC 신기술 등록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는 신기술을 더욱 신속하게 도입하여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신기술의 등록 범위와 절차를 과감하게 단축하였다. 기존의 정부인증기술에 한정되어 있던 등록 범위를 성과공유제* 개발기술 등에 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전 검토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심의위원회의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공정성까지 확보했다. 그 결과 신기술 등록 실적이 올해는 65건으로 5배 증가하였고, 이중 50건의 신기술이 건설현장의 설계 각 부문에 적용되어 약 456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게 되었다.

*성과 공유제 공사와 중소기업 간의 공동개발 기술을 공사 사업현장에 적용하는 상생협력제도



인터뷰



디케이(주) 대표 남택신

"신기술 등록으로 숨통 트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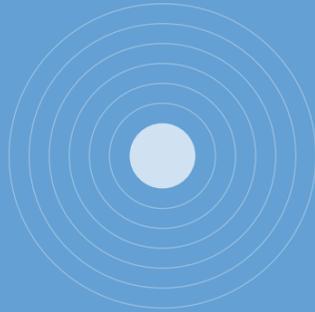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평가 위원들께 어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디케이의 컴팩션 그라우팅 시공기술(TCS 공법)을 KRC 신기술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 쌍천 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저희 신기술 공법을 적용할 수 있었고, 코로나19 등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90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기술 보호]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임치 비용 지원까지

한국농어촌공사는 중소기업의 땀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신기술이 유출, 도용되지 않도록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술임치 제도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0백만 원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여 11개 기업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다. 또한, 1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 지원을 하는 등 금융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올 한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최대한 많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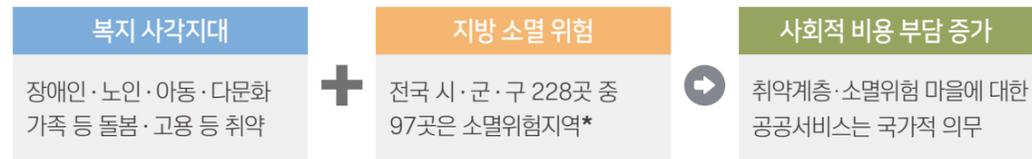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회적 농장」



■ 일자리 창출 □ 사회통합 □ 안전·환경 □ 상생·협력 ■ 지역·발전 □ 적극행정 □ 코로나19극복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의 필요성

오늘날의 경제·사회·문화적 양극화 심화 현상은 소외계층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도시와 떨어진 농어촌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농어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은 다양한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인구 유출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복지 기능을 담당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한국의 지방 소멸 지수 2019」

한국농어촌공사, 사회적 농업으로 농어촌 복지에 답하다

사회적 농업이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소속시키고 자립을 돕는 활동으로 농업 생산, 가공, 유통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농장에서는 고령인, 장애인, 다문화여성, 청소년, 범죄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업을 활용한 농장 체험, 영농교육, 농산물 가공교육 등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돌봄, 고용, 교육 등의 복지 기능을 진행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돌봄, 교육, 고용을 돕는 사회적 농장의 정책적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사회적 농장 100개소의 육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 사회적 농장을 통한 농어촌 취약계층 '돌봄'

사회적 농장이 가진 돌봄 기능은 장애인, 고령인,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원예치료, 체험농장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는 원예·농업활동을 통해 심신 안정을 도모하는 일종의 재활치료로 취약계층의 사회화 또는 재사회화를 도모한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은 국가 돌봄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농장이 가진 돌봄 기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취약계층을 위해 꼭 필요하다.



영광 여민동락 _ 치매노인 대상 원예치료와 마을 어르신 대상 영농체험 등 돌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전남 영광군 치매극복 선도 기업으로 등록되었고, 2020년도 136명의 어르신들이 여민동락에서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임실 선거웰빙푸드 _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원예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섬진강 변의 야생화를 보존화로 생산, 판매 하며 보존화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으로 창업까지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고 있다. ('20년도 150명 대상 18회 운영)

둘. 사회적 농장을 통한 농어촌 취약계층 '교육'

사회적 농장이 가진 교육 기능은 직업을 갖거나, 재할을 위해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농업·농촌분야의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 농업 기반이 없는 청년, 다문화 여성 등을 대상으로 농촌 생활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농업 및 농촌 생활 관련 기술을 교육하고 멘토링하는 것으로 올해 지원한 사회적 농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농산물 가공교육, 제빵 등 요리교육, 영농기술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다.



화성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 _ 농장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김충광 씨 "농장에 온 지 5년째입니다. 굴삭기, 예초기 다루는 법을 배웠고, 목공 자격증 2급도 취득했어요. 기술을 익히고 재미도 있으니 농장에 감사할 따름이죠."

셋. 사회적 농장을 통한 농어촌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 농장이 가진 고용 기능은 사회적 약자를 노동력으로 활용한다기보다는 자립과 재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애인 허브 테라피 강사 육성과정, 청년농부 활동가 양성, 사회적 농업 실천가 양성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얻음과 동시에 사회적 농업의 확장을 도모하며, 창농을 꿈꾸는 청년농에게는 1:1 도제교육인 농탄심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한다.



나주 화담영농조합법인 _ 전남 나주 화담영농조합법인에서는 마을 어르신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허브테라피와 가든 플래너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올해 인근 농업법인과 마을 도서관 등에서 26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저희 농장의 최종 목표는 장애인 일자리 고용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박수진 상임이사)



청송 해뜨는 농장 _ 농탄심 '슬기로운 농장 생활' 참가자 **송원식 학생**
“농장경영을 목표로 농대에 진학했지만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해뜨는 농장에서 마을 주민이 되어 생산부터 유통까지 직접 해볼 수 있어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회적 농장을 지원하는 KRC 종합지원체계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사회적 농장 육성·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농업·농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사회적 농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거점 농장을 지정·운영하여 신규 사회적 농장의 설립 및 원활한 운영과 농장 간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률, 회계, 세무, 특허 등 경영전문 서비스와 온라인 판로지원,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중이던 사회적 농장 온라인 플랫폼(www.socialfarm.kr)을 정식 오픈하여 사회적 농장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분류	2020년 주요 지원내용
전문 서비스	• 법률, 세무 등 전문 행정서비스 107회 지원 • 제품개발 : 상표-특허 출원 12건 / 신상품 6종 브랜드 1개 개발 완료
판로지원	• 우편사업 진흥원 우체국 소평물 입점 MOU 체결 • 7개 사회적 농장 3.5억 원 매출 달성
홍보 마케팅	•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사회적 농장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 기타 홍보 : 홍보책자, KTX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추진

사회적 약자의 보금자리, 미래를 만든다

2020년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원·육성한 30개 사회적 농장은 각각 돌봄, 교육, 고용 기능을 가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약 6,000명의 농어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직업교육을 통해 농어촌 취약계층 148명이 일자리를 얻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1인당 고용 상실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했을 때, 약 1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1인당 최저생계비 월 1,054천 원 기준)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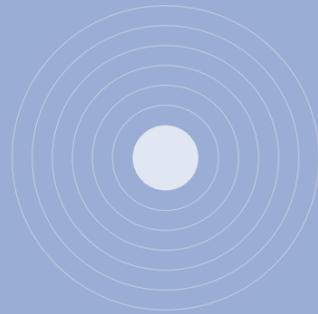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취약계층 복지혜택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는 향후 사회적 농업의 복지 기능 확대를 위해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여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사회적 농장이 복지부 지역사회통합 돌봄, 고용부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등 기존의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종합적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사회 보장제도 연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회적 농장 참여 수요 조사 결과 28개 농장에 각각 1~5개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이 있었다.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사회적 농장의 육성을 통해 농어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 아이들, 농촌으로 유학가다!



□ 일자리 창출 ■ 사회통합 □ 안전·환경 ■ 상생·협력 ■ 지역·발전 □ 적극행정 □ 코로나19극복

텃 밭 농촌학교와 방과 후 갈 곳 없는 도시 아이들

도시 아이들은 바쁘다. 직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야 하는 어른들처럼 아이들은 학교가 끝난 후에도 학원 2~3곳을 돌아야 한다. 자율적인 방과 후 활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체득할 수 있는 생태감수성을 키울 기회도 없다. 학업 스트레스와 공동체 의식의 약화는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반해 젊은 인구의 도시 이동으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에서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인구분포 격차는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농촌 소외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 요인이 되고 있다. 감수성이 메말라가는 도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험의 기회를 열어주고,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도농 간 거리를 좁혀가는 일은 어느 한 쪽이 아닌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

도시 아이들의 전인교육을 이끌 농촌이라는 터전

한국농어촌공사는 도시 아이들에게 농촌에서 배울 수 있는 공동체의식과 생태감수성 등 전인교육의 방안을 제시하고,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 새로운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농식품부와 농촌유학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농촌유학은 도시에 사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부모, 가족의 곁을 떠나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 주민과 함께 농촌의 농가 또는 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생활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립, 신체 성장, 지적 성장, 정서 성장, 자연 친화, 공동체 등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 구성이 상호 연계 하에 통합적 관점으로 기획 진행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유학 사업의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 농촌마을, 학교, 농촌유학센터와 협력하고 도시 아이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며 조화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들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홍보, 시설 운영지원에도 힘을 모았다.

농촌유학 협의체 구성

농촌유학센터	학교	농촌마을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전인교육 프로그램, 돌봄 및 숙식	+	소그룹 교육, 사회문화서비스	+	마을 공동체·농촌생활 경험	+	홍보, 평가, 운영 모니터링	+	예산지원, 조례제정 시설 및 운영지원



도시 아이들과 농촌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

농촌유학센터 평가제 신설 및 간접 체험형 홍보 강화

특히 2020년에는 농촌유학의 내실화와, 농촌유학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 시범평가를 거쳐 농촌유학센터 평가제를 도입하였다. 농촌유학이 잠깐 다녀가는 방문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장기간 체류하고 학습하며 생활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학부모와 아이들이 농촌유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농촌유학에 대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국의 농촌유학센터 26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시설, 인력 운영, 안전위생, 프로그램 운영, 유학생 관리, 대외 협력, 만족도 등 농촌유학 전반에 걸쳐 40여 개 지표에 대해 3개 분야의 전문가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대외에 공개했다. 동시에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별도로 우수 농촌유학센터를 선정하여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농촌유학의 질적 향상을 뒷받침하였다.

평가제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농촌유학센터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국 농촌유학센터의 정보와 평가등급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농촌유학을 더욱 친근하게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농촌유학을 에피소드로 구성한 웹드라마 제작 및 영상 홍보를 신규 도입하여 농촌유학의 일상을 간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감형 홍보를 시작하였다.

농촌유학센터 평가, 농촌유학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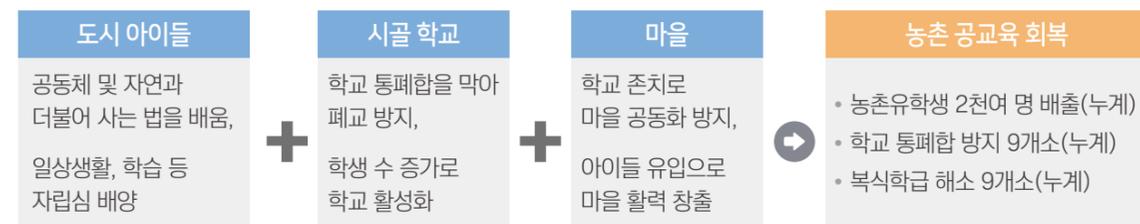
다시 웃는 아이들, 다시 서는 농촌

농촌유학을 경험한 학부모와 아이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농촌유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농촌유학이 아이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촌유학을 한 학생들의 동생들이 다음 기회에 농촌유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촌유학은 도시 아이들이 자연과 마을공동체 속에서 관계 맺기를 통하여 그 과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배우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급속한 노령화와 인구 유출로 침체되어 가는 농촌마을에 활력을 되찾게 해주었다. 농촌학교의 통폐합 방지와 복식학급 해소 등 농촌 공교육의 회복은 도농 간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 자연과 공동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농촌유학은 인간 중심의 본질적인 교육의 대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유학이 도시 아이들의 전인교육뿐만 아니라 농촌마을 살리기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경제와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도농 가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유학 사업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농촌유학 성과



인터뷰 & 사례



마을과 아이들의 관계 맺기

아이들, '마을' 공동체 속에서 관계 맺기를 통해 '삶'을 배우다

밀머리 농촌유학생들은 설날이나 추석 등 우리 고유의 명절이나 크리스마스에 어른들로부터 세뱃돈이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산타복을 입고 손편지 등 직접 마련한 선물도 드리고 함께 어울려 웃놀이기도 하는 등 우리 마을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삶을 배우고 있다.



학부모 인터뷰

농촌유학은 우리 아이에게 "자연이 주는 힐링"

농촌유학을 보낸 어머니 박00(42, 서울 중랑구)씨는 "농촌유학의 가장 큰 성과는 자기중심적이고 예민했던 아이의 성격이 소탈하고 넉넉하게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씨는 "아이가 평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곧잘 해 어른들에게 지적을 받곤 했는데, 농촌에서 지내면서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요'라고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고, 각쟁이였던 아이가 자기 물건을 너나없이 나눠 쓰게 된 것도 신기합니다."라고 말했다.



마을의 긍정적 변화

"학교가 살아남게 되어 마을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졌습니다."

소호산촌유학센터 마을 사람들은 초반에는 도시 아이들이 왜 농촌으로 유학을 오는지 이해를 못 해,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부정적인 인식이 희석되고 농촌유학을 이해하게 되었고, 농촌유학생이나 귀촌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마을의 작은 학교가 살아남고 마을에 활기가 생기자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졌다.

지역사회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까지

제천의 한부모 가정의 자녀 3명은 어머니의 뇌종양 수술로 부모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어머니 앞으로 일부 재산이 있어 정부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학교와 제천 시청 사회복지과는 인근에 농촌유학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아이들을 농촌유학센터와 연결을 하게 되었고 농촌유학센터에서도 기꺼이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함으로써 아이들은 공동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촌유학의 본래 기능에 더해 지역사회 보육 사각지대 해소라는 순기능까지 수행하며 농촌유학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 전남 장성호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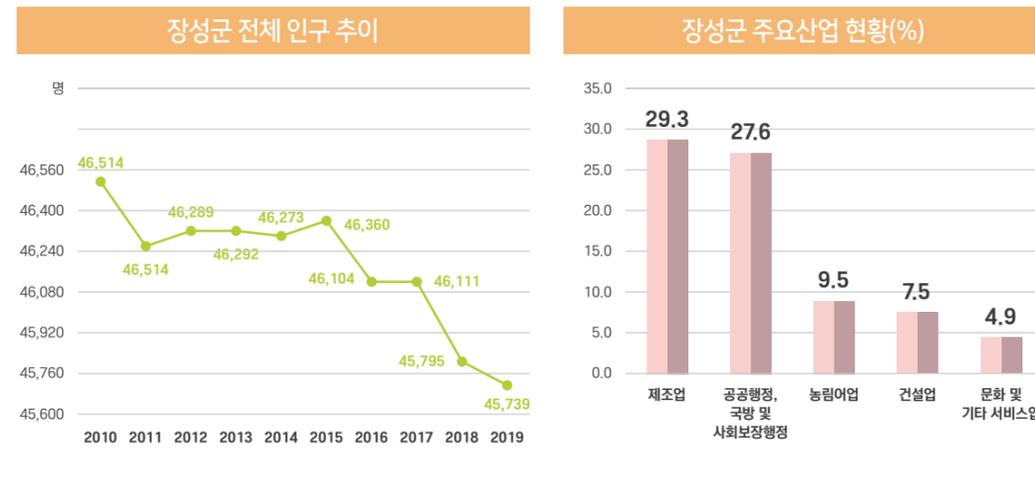
□ 일자리 창출 □ 사회통합 □ 안전·환경 □ 상생·협력 ■ 지역·발전 ■ 적극행정 □ 코로나19극복

급격히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1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농촌에서는 그 현상이 도시보다 더 빠르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청장년층 젊은 인구의 유출로 인한 지속적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일부 농촌의 경우 소멸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성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농촌의 잠재적 가치를 되찾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농 간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 `20년 농가인구는 `19년 대비 1.5% 감소, `24년 농가인구는 `19년 대비 16% 감소 전망



농업용 저수지, 농촌 활력의 자원이 되다

저수지는 농업용 용수 공급이라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사람들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한다. 그러나 저수지 주변의 개발 미비 등으로 방문객들이 저수지에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다원적 활용이 아쉬운 상황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장성군은 협업을 통해 농업용 저수지 주변에 수변 데크 설치를 시작으로 장성호를 관광명소로 본격 조성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자원을 개발, 개방하는 적극적인 자원의 개방, 활용 사례라 할 수 있다.

장성호 경관



기관 협업과 적극행정으로 탄생한 장성호 수변공원

장성호는 수변 데크 산책로, 출렁다리, 체육시설 등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2019년 기준 연 29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 있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장성군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기관의 특성을 살린 협력으로 장성호 수변공원을 지금의 형태로 조성할 수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변공원 설계와 시공을 맡고, 장성군은 신규 사업 공모 신청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공사는 개발부지 확보를 위해 '농업생산 기반 시설용도 폐지' 요청 등 수변공원 조성에 필요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장성군은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더불어 공사 시설물에 장성군의 로고 '엘로우시티 장성' 설치 부지를 제공하여 저수지 수변공원 홍보 효과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

장성호 수변공원



발상의 전환이 만들어낸 부가가치 창출

농업용수 공급의 용도로만 사용하던 장성호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기도 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라남도도와 협의하여 '농업생산 기반 시설 부분 폐지' 신청을 통해 필요한 최소 범위의 부지에 용도 폐지 후 지자체에 매각하여, 편의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직거리 장터를 2020년 여름부터는 '수변길 마켓' 건물을 설치하여 주말마다 14개 농업인 단체가 상주 운영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장성호 수변공원 인근 부지에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 농원(K-FARM)을 조성하는 신규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K-FARM 사업 임대·체류·체험의 복합 서비스 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민에게는 사계절 상시 영농 및 힐링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민에게는 영농 가이드, 로컬 푸드 판매 등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동시에 제공하는 도농 상생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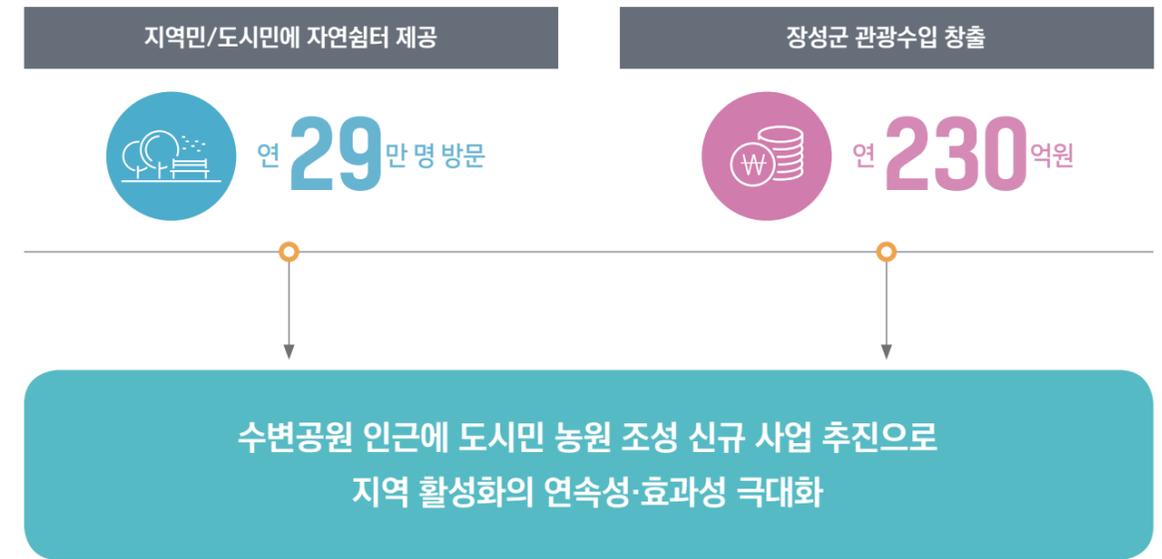
K-FARM 시범지구 : 장성농원 조성 계획

구분	면적 (ha)	주요시설 및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합계	48.8	-	19.4
임대농원	19.9	- 농기일대 후 구역면적 1,000평소 조성 - 용·배수설비 및 용수막 설치 - 관능가이드 발상 및 농가주방대면대 운영 - 공동체 구축 및 지원 활성화	2.5
체험농원	2.0	- 가족단위 체험객 숙박시설 100개소 - 농촌민속 민속 체험시설 구축 - 로컬 푸드 상화수도 등 부대시설 - 농촌 민속 체험관 장기 체험 PFI인 구축	4.0
계합	6.9	- 농민주인사우주실, 복합형, 이상원 '도농상생' 센터 - 피닉스야영 및 캠핑리조트 등 운영 - 체험가이드 운영팀 조성 및 교육 - 지역농업 프로그래밍 및 전문인력 양성	8.5
관리농원	20.0	- 농민주인사우주실(입자, 빌딩 등) - 관광 휴양 자원관리(사계, 휴양, 선별, 판매 등) - 스마트 기반 정보 시스템 - 공동체 구축 및 지원 활성화	1.8

전남 장성호 수변 개발 과정 및 성과



장성호, 장성군 3대 관광지로 재탄생



사례



친수형 -
개운저수지 전경

"상주 개운저수지, 시민들의 힐링 공간입니다."

개운저수지 수변공원은 상주 시가지와 멀지 않아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물 위의 부잔교와 수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상주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원이다. 야간에도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태양광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다.



레저형 -
마장저수지 출렁다리

"캠핑장, 출렁다리, 수상 레저. 수변공원에는 놀거리가 가득합니다."

파주 마장저수지는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근교에서도 찾아올 만큼 유명한 공원이자 캠핑장이다.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캠핑장은 캠핑 시즌이 되면 휴양객들로 가득하다. 여름에는 수상 레저도 할 수 있고 수변산책로, 하늘계단, 공원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출렁다리는 마장저수지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다.



생태형 -
중화지 생태공원 조성 계획

"생태공원으로 거듭날 중화저수지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중화지는 고령군 대가야읍에 위치한 저수지로,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보도교와 방문자 센터를 만들고 군민들의 친환경 여가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 준공 예정으로 고령의 주요 관광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